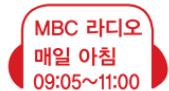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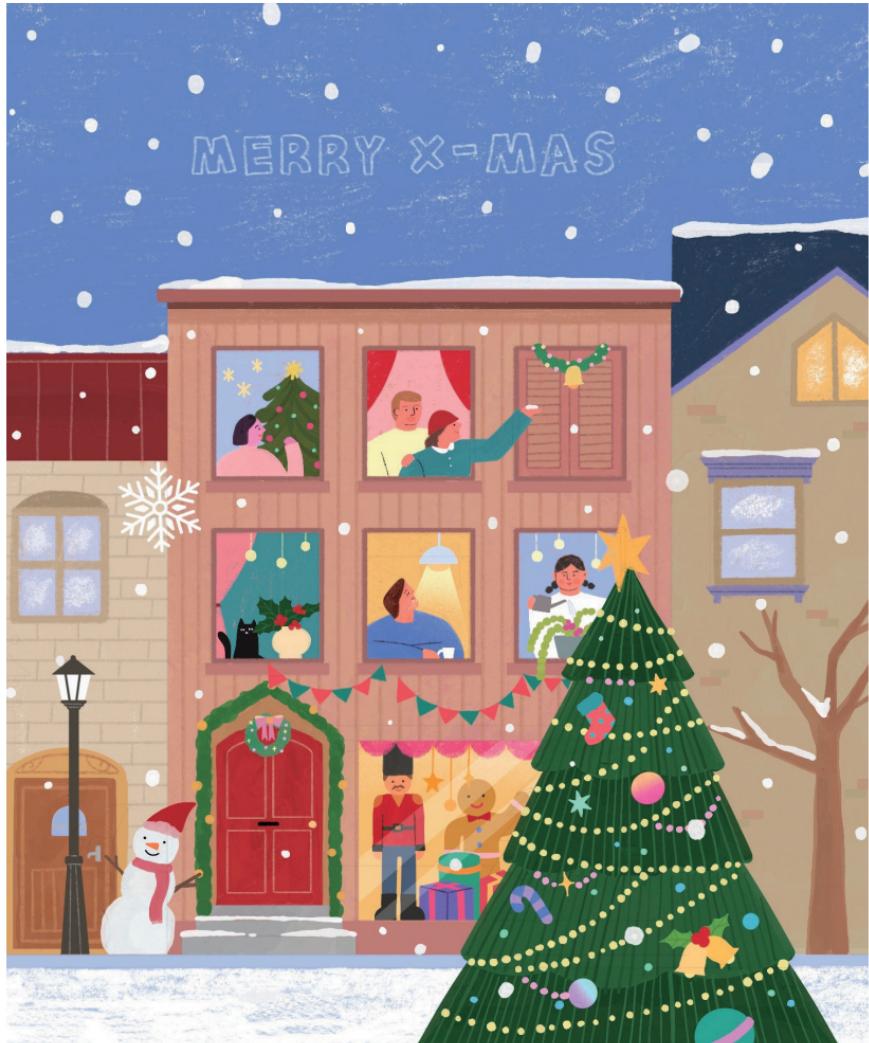


여성시 IDA

양희은·김일중입니다

12월
2023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화성빌안지점 거래고객
화성중앙종합병원 이상오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면목동지점 거래고객
(주)그린주의 김현미 대표



IBK 기업은행

이름만보면
혜택을알수있는
I.B.K카드

나에게 딱 맞춘 카드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B카드



남다른 삶을 위한 프리미엄 카드

contents 2023년 12월호



04 여성시대 특집

미담 디톡스 쓰담쓰담

13 이달의 편지

‘밥 한번 먹자는 말’ 외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화성중앙종합병원 이상오 대표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주)그린주의 김현미 대표

80 코너 속 편지

‘나에게 가족이란’ 외

11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소통이 반갑다

113 김일중의 스튜디오에서

2023년에게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3년 12월 10일
발행인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중
프로듀서 안정민, 양지안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증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릉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건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특집

미담 디톡스 쓰담쓰담



추운 겨울 마음을 따뜻한 쪽을 향해 두고 싶어집니다.

우리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지요.

생각만 해도 잔잔한 미소가 떠올려지는 미담이 있으면

여성시대로 보내주십시오.

마음속 독소를 빼내고 쓰담쓰담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잘사는 세상

정일준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대파삼겹살과 돼지국밥을 판매하는 가게인데 며칠 전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찌해야 하나 혼란스러웠는데 건물주께서 가게를 저희 보고 사라고 하더군요. 코로나도 간신히 버텼고 이제 조금 숨 좀 쉬겠다 하던 찰나라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가게에는 노부부 한 팀과 계산을 마치고 간 테이블 하나가 있었는데 다 드신 테이블을 치우려고 하는 순간, 어떤 젊은 여자분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나요?”

여성분은 머뭇거리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위에 있는 거… 제가 먹어도 될까요?”

순간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저기 불판 위에 남은 볶음밥 제가 먹어도 될까요?”

이게 무슨 일이지? 싶더군요.

그제야 자세히 보니, 젊은 여자분은 노숙하는 듯 행색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그분에게 뭔가를 더 묻는 건 실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알겠다고 하고 잠시만 옆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분은 “아… 아니에요. 괜찮으시면 저는

저것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곤 가만히 서 계시더라고요.

“잠시 기다리세요” 하고 얼른 주방으로 달려가 국밥을 한 그릇 포장하라고 하고 저는 불판 위의 볶음밥을 포장했습니다. 포장하는 내내 너무 많은 생각이 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밥이랑 공깃밥 그리고 볶음밥 3개를 봉지에 담아 여자분께 주면서 지나다가 배고프면 언제든 괜찮으니까 오시라고 하니 무슨 뜻인지 모를 옆은 미소를 지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분이 나가고 웬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추운데 당장 지친 몸을 널 곳도 없을 거로 생각하니 안타까움이 더 밀려들더군요. 깜박하고 수저를 챙겨 넣지 못했다는 게 생각나 바로 달려 나갔는데 벌써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걸 식사하면서 보고 계셨던 노부부님도 수저를 내려놓고 소주 한잔으로 마음을 달래시는 듯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아직 밥을 못 먹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 얼마나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었으면 장사하는 가게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까요. 지나가다가 불판 위에 먹고 남은 걸 보고 참지 못하고 들어온 그 심정을 생각하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에 하루 종일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인생이 고달프다’고 생각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워졌네요. ‘그래도 나는 밥도 먹고 우리 가족들이랑 잘살고 있으니 복 받고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직도 거리엔 배고프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데 뉴스에 나오는 정치판은 자기네 정당 밥그릇 챙기기에만 바빠 보이고, 제발 그런 힘으로 민생을 한 번 더 챙기면 좋으련만. 부디 모두가 잘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뜻한 냉장고

애청자

라면을 끓여 김치를 꺼내려고 냉장고를 열어 보니 냉장실이 텅텅 비었다. 요즘 아들은 자취하느라 나가 있고 남편도 일이 바빠 집에서 밥을 잘 안 먹게 되니 나도 주방에 있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 게다가 냉장실 선반이 지저분하다. 얼른 라면을 먹고 냉장고 청소를 시작했다. 선반을 모두 꺼내 설거지한 후 마른행주로 물기를 닦고 냉장실 안쪽 벽면을 깨끗이 닦은 후 선반을 다시 제자리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문짝 걸면까지 닦고 나니 속이 개운. “이게 어떤 냉장고데 깨끗이 잘 써야지~” 중얼거리며 냉장고를 손으로 한번 쓰다듬었다.

전에 쓰던 냉장고는 15년 전에 새로 구입한 것이었다. 위아래로 문이 있는 냉장고를 쓰다가 처음으로 양문형 냉장고를 샀더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9년 정도 쓰니 자꾸 고장이 나기 시작했다. 3년 동안 세 번의 고장. AS 기사님이 한 번 더 고장이 나면 차라리 바꾸는 게 낫다고 하셨다. 하지만 누가 그걸 모르나? 그땐 남편 사업이 힘들어져 허덕이고 있을 때라 어떻게든 냉장고가 잘 버텨 주기만을 바랐다.

그런데 또 고장이 났다. 속상한 마음에 내 사정을 다 아는 친구에게 전화해 하소연을 했다. 친구는 마침 자기 냉장고를 바꾸고 싶었는데 자기가 쓰던 걸 가져다 써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난 당장 큰돈이 안 들어가면 좋으니 그러겠다고 했다. 혹시 나

때문에 일부러 바꾸겠다고 하는 건 아닌지 물었지만 친구는 얼마 전부터 바꾸고 싶었다며 새로 살 냉장고를 알아보고 배달 날짜에 맞춰 자기가 쓰던 냉장고를 옮겨주겠다고 했다. ‘아!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구나’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전자제품 물류센터에서 이틀 후에 냉장고가 배달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아무래도 새 제품인 듯했다. ‘친구가 냉장고를 사면서 주소를 우리 집으로 착각해서 잘못 적었나?’ 생각하며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근데 이상 했다. 자꾸 말을 얼버무리고 바쁘다고 조금 있다 다시 전화하겠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는 것이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느낌이었다. 조금 있으려니 같이 모임을 하는 다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만약 입장이 바뀌었다면 너도 그런 결정을 했을 거야. 그러니 까 받아줘. 그리고 잘 써줘. 부탁이야.”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좀 전의 그 친구가 내가 냉장고 때문에 속상해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쓰던 냉장고를 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마음에 걸린다고 모임에서 의논했다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친구들 네 명은 ‘회비로 새 냉장고를 사주자’ 의견을 모았고, 친구가 직접 매장에 가서 내 마음에 들 만한 냉장고를 골라 배달 예약까지 했는데 막상 나한텐 얘기를 못한 것이다.

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리고 눈물이 났다. 이미 일은 벌어졌고 내가 끝까지 거절하면 친구들 성의를 무시하는 게 될 테고 아무튼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난다. 전화를 끊고 다른 친구 세 명에게도 전화해서 염치 불고하고 고맙게 잘 쓰겠다는 인사를 전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묵직한 것이 아프게 올라오면서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서러움이 뒤엉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특히, 호의를 베풀면서도 내가 상처받을까 오히려 더 조심하는 친구들을 보니 부담을 준 것 같아 너무 미안했고 비참했다.

자기 연민에 빠진 나는 급기야 주방 싱크대에 기대고 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다. 마침 고3이던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엄마가 울고 있으니 놀라서 무슨 일이냐 물었다.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자 아들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말했다.

“엄마, 참 잘살았다! 그런 친구들이 있는 엄마가 부러워. 나도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커서 이모들한테 갚을게.”

아들에게도 고마워서 “그래, 네가 그런 친구가 되면 되는 거야” 말해 주고는 또 한 번 울었다. 그게 벌써 3년 전 일이다.

친구들은 20년 전 직장에서 만났다. 1~2년 후 각자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 흩어지면서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밥도 먹고 얘들 키우는 얘기도 하면서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 내가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어가면서 세상과 단절하고 살 때도 나를 다시 세상으로 끌어내 준 친구들이다. 모임 때마다 일부러 나를 데리러 와서 함께 밥 먹고 수다 떨며 놀다가 다시 집까지 데려다주는 수고를 당연한 듯이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친구들이 흔하진 않을 텐데. 그리고 보면 난 좋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 부자’임에 틀림없다.

그런 사연이 있는 냉장고이니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냉장고를 열 때마다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 차가운 냉장고지만 내겐 마냥 따뜻한 냉장고이다.

일중이가 간다!



여성시대 진행자 김일중 님의 진행 100일 기념으로 여성시대 가족들이 부르시는 곳으로 달려가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싶다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중 세종시의 김수연 씨 사연이 채택되었습니다.



김수연 씨는 〈11월 11일 결혼하는 예비 신부입니다. 1년 중 1이라는 숫자가 가장 많은 날 1중님이 결혼식에 오셔서 사회를 봄주시면 여성시대 열혈애청자이신 저희 아빠가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청하셨지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김일중 님이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11월 11일 사회를 보러 청주로 달려갔습니다. 웃음과 감동의 결혼식 현장 함께하시겠습니다.

〈여성시대 문자 모음〉

[4070] 올해 3월부터 이사하면서 라디오랑 친구 맷고 여성시대 열혈 당당이가 됐어요. 라디오 청취가 제 생활에 루틴이 되고, 라디오를 통해 귀가 트이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라디오를 듣는 습관으로 지난 1년 동안 작지만 큰 변화가 생겼어요. 무엇보다 삶에 대한 애착과 저에 대한 애정이 커졌습니다. 여성시대 사랑합니다!



[8489] 제 아내는 마술사입니다. 9천 원 주고 마라탕을 포장해 와서 배추, 숙주, 우삼겹 넣고 1인분을 3인분으로 만들어 버리네요. 세 번째 먹는 마라탕인데 점점 그 맛에 빠져들고 있어요. 아내의 손맛이 더해져서 그런 거겠죠?

[2815] 저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도자기 수업을 하는데 2학년 어린 친구가 감사 편지를 주더라고요. 찐 감동 먹고 열심히 수업하고 있어요.



[2328] 이번 주부터 서해, 남해, 동해, 전국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맛집을 찾아다니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9세에 직장과 집을 벗어나 생애 첫 여행을 갑니다. 혼자 여행이라 설레고 떨리네요.



[7421] 저는 얼마 전 충북 제천 월악산에 다녀왔습니다. 한참 산을 타는 도중 갑자기 양쪽 하벽지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여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등산객들께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정상까지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아픈 다리를 추스르며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약과 처치를 도와주신 이름 모를 등산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4 '밥 한번 먹자'는 말	40 나는 지금 철드는 중
17 고마운 인연	43 엄마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자
21 뒤늦은 후회	46 굳은살 박인 양말을 개며
25 어머님의 밥솥	48 고마워요, 젊은이
28 제주살이	51 집주인 아줌마와 건년방 새댁
32 나 어떡해	55 방송 후 달라진 남편
34 열리지 않는 아이들의 방	58 2층 새댁네와 13층 우리의 동거
38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며	61 20년 장사 끝내신 엄마



일러스트 | 조신애

Letter 01

‘밥 한번 먹자’는 말

신영희 |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유십이 넘어가며 허튼소리 않기로 마음먹었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과 빙말을 하지 말자고. ‘밥 한번 먹자’는 소린, 먹자는 말이 아니니 새겨들으라고 양희은 님이 방송 중에 말했음에도 나는 눈치 없이 기다렸고 듣고 보니 지키는 이 역시 많지 않았다.

접대성 멘트건 아니건 메모장에 적어 놓고 ‘밥 한번 먹자’고 했으면 조만간 실행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연말을 핑계로 공약한 이들과 약속을 잡았다.

먼저 연락한 터라 부담 없는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고 조금 일찍 나가 계산을 마쳤다. 뜻밖의 연락에 반가워하는 이도 있지만 “아유~ 그 걸 기억했어?” 그런 분도 있었다. 헤어질 때 선물로 챙겨간 수저 세트를 건네며 계산을 끝냈다는 말에 멋쩍어하는 분이 더러 계셨다. 밥을

사고 선물할 정도의 친밀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상대에게 도움 받은 일이 있다면 만남을 기회로 감사의 예를 갖춘 게 되고 언제 뵙지 모르지만 적어도 어색함은 피할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었다.

집안 제부와 업무차 만나 이야기하는 도중 그 집 자녀의 수시 합격 소식을 들었다. “밥 한 번 사줘야겠네~” 하는 말이 습관처럼 튀어나왔다. 귀갓길에 케이크를 사 가지고 기프티콘을 보내면 될 것을 방법을 몰랐다.

그렇게 대학 입학이 끝나고 기말고사에 이어 방학 알바 등으로 1년이 훌쩍 지나갔다.

나도 남과 다를 게 없이 밥 공약 남발자였고 메모장에 남은 그 약속이 마음에 걸려 아이 방학을 기다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셋이 식사를 했다.

이모에게 드리는 선물이라며 아이가 상자를 내밀었는데 취미 삼아 만든 행주 7장이 들어 있었다. 행주 선물은 처음이기도 했지만 엄마 작업장에 따라가 손수 만든 거라니 정성이 깃든 선물이라 좋았다.

합격 소식을 안 지 1년이나 지났고 본인이 바빠 시간을 못 냈는데도 기다렸다가 밥을 사주신다고 해 고마웠다고 했다. 시내까지 나오면서 엄마와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왔다며 오는 내내 즐거웠다고 했다.

스무 살의 처자가 기억에도 없는 육십 넘은 엄마의 사촌 언니와 밥을 먹는 게 편한 자리는 아니었을 텐데 마음을 표현해 주니 약속 지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약속으로 한동네에서 자란 이웃 오빠와 동생을 인근 샤푸 샤푸 식당에서 만났다. 어쩌다 보니 다시금 한동네에서 만나 반가운

마음에 밥 한번 먹어야지 하는데도 상대가 바쁜 분이라 차일피일 미루다 약속을 잡았고 허물없다는 생각에 “밥 먹자고 한 것 기억나요?” 하니 허허 웃으며 좋아하셨다.

수저 세트를 드리며 밥값 계산도 끝냈다니 야단을 쳤다.

“내가 이 나이에 네 밥을 얻어먹으면 되겠냐?”

그러셨지만 늘 윗사람만 밥을 사야 하냐며 먼저 간 동생 대신이라며 응석 부리듯 말하니 “니 나이 일흔 살이 되는 해에도 밥을 사줄 거냐?” 하셨다. “살아만 계신다면요” 하니 당신 나이가 그땐 여든이라 지팡이 짚고 장소에 나타날 것 같다면 좋아하시다가 결국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으셨다.

오빠도 나도 친구 생각이 나서 잠시 추억했고 대접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은 달력을 바라보며 습관처럼 수첩을 꺼내 ‘밥 한번 먹자’는 공약이 있나 살펴보지만 그 후로 내게 공약하는 이는 거의 없다.

가끔 내가 선물한 수저로 밥을 먹으며 내 생각을 했다며 반갑게 전화를 주시는 이도 있고, 여행지에서 부지깽이나물 한 봉지 사 왔다며 나눠 주려 근처를 방문하는 분도 더러 있다.

친구 Y는 메모하는 내가 무섭다고 했는데 그 무서운 할머니는 요즘 도 용돈을 조금씩 떼어 모은다.

일흔이 되는 해, 이웃집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아 계시면 밥 사주고, 친구들에겐 늙어도 여자니 괈사 마사지기 하나씩 돌릴까 싶어서 말이다. 별나다 하지만 어쩜 나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Letter 02

고마운 인연

신명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 14년 1월 10일 먼저 근무하시던 분의 물건은 모두 사라지고 책상 위에는 컴퓨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예쁜 화분 하나와 새로 오시는 분의 물건인기가 구색 갖추어 놓여 있었다. 나야 누구의 물건이 있건 없건 청소만 하고 나오면 그만이지만 누군가 있던 자리에 다른 물건이 있고 어느 곳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영 허전하고 섭섭하고 편안하지 않았다. 그래도 새로 오시는 분에게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쪽지 한장을 남겨 놓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방을 청소하는 사람, 신명자입니다. 인연은 얹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며 저에게 부탁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면 쪽지로 남겨 주십시오.>

3일 후 책상 위에 답장으로 보이는 쪽지가 놓여 있었다.

<반갑습니다 신명자 씨, 청소하는 게 표시도 안 나고 힘드시지요?
아침에 출근해서 쪽지를 보니 하루 시작이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깨끗해서 더 바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행복하시고 기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글에 답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글을 남겨 놓았다. 그분과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분이 출근하기 1시간 전쯤 청소를 마치고
나오니까 며칠이 지나도 상면은 하지 못했다.

2014년 1월 16일 이른 아침, 어두컴컴한 현관 앞에서 아담하고 말쑥하게 차려입으신 낯선 분과 마주치게 되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그분은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받으시고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셨다. 직감적으로 새로 부임한 사장님이라는 것을 느꼈다. 얼떨결에 악수를 했다. 첫 만남부터 다른 분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온종일 기분 좋고 행복했지만 실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그 후 한 달쯤 되어 '밸런타인데이'에는 장미꽃다발과 막대사탕을 커다란 봉투에 가득 담아서 출근하셨다. 제일 먼저 만나는 나에게 장미꽃과 사탕을 주시고 악수를 했다. 감동 그 자체였다. 사무실 직원들을 비롯한 식당, 경비실, 매점에서 일하는 모든 여자 직원분께 수고가 많다며 장미꽃과 사탕 선물을 주셨다. 어느 여사님은 평생에 처음으로 장미꽃을 받아 보았다며 잊지 못할 거라고 했다.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고 해마다 장미꽃을 준비해 오셨고 손도 꼭 잡아주시고 이름을 기억해서 만날 때마다 불러주시는 것이 특별했다. 언제나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하시니까 제일 먼저 만나게 되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혼자 일하고 있는 내가 놀랄까 봐 1층부터 노래도 부르고 휘파람도 불며 인기척을 내며 올라오셨다. 아침마다 간식



으로 방울토마토 몇 개, 땅콩 몇 개, 삶은 달걀 몇 개 등등 간식도 나누어 먹었다. 4년 9개월 동안 그 추억들을 어찌 다 열거할까.

2018년 9월 19일 2층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선물 세트 하나를 들고 들어오시면서 내일부터 퇴임식까지 휴직이라고 하셨다. 악수를 하며 건강히 지내라고 하셨다.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주체할 방법이 없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눈물이라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분은 팔을 벌려 나를 꼭 안아주며 등을 여러 번 쓰다듬어 주셨다. 목이 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외에는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분 역시 울컥해 하며 내일부터 간식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된다고 건강히 잘 있으라고 하셨다.

아들이 입대할 때도 울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아니,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별은 슬픈 거니까 나의 눈물에는 거짓은 없었다. 졸업식 날 아무리 서럽게 우는 아이도 학교에 그냥 남아 있고 싶어서 우는 건 아닌 것처럼. 그다음 날 텅 빈 사무실에 그분이 버리고 간 잡다한 물건들과 하얀 작업복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어제보다 더 많이 울었다.

퇴임 후에도 가끔가끔 안부를 물어와 주셨다. 그때마다 너무 반갑고 고마웠다. 2년 전쯤엔 이국땅에서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회사 준공식 하는 사진을 여러 장 보내주셨다.

‘대한민국 만세, 우리의 갑! 만만세, 고생하셨습니다.’

박수를 쳐 드렸다.

그리고 지난 10월 4일 우연히 그분이 계신 나라로 친구들과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정말 반가워하며 얼굴 한번 보자고 일정표를 보내 달라고 하셨다. 뜻밖이라 오랜만에 가슴 설레는 하루였다. 그분이 계신 곳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서 아쉬움만 남겼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알려주고 아침저녁으로 전화도 해주셨다. 만날 수는 없었지만 가까이 계신다는 기분에 기쁨 두 배 행복 두 배 즐거운 여행이 되었다.

그분과 나는 어려운 관계지만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고 나를 위해 이국의 풍광을 아침마다 보내주시고 안부를 물어봐 주시는 분이 있어 아주 많이 행복하다. 이러다 날마다 기다리는 나쁜 버릇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지 모르겠다. 이러다 소식이 뚝 끊어지면 그때처럼 울고불고 슬퍼지면 어찌나 걱정이다. 격이 나도 엄청 많이 나는 어려운 관계였다.

Letter 03



뒤늦은 후회

애청자

아 버지를 떠올리면 사람들은 강인하고 기대고 싶은 존재로 기억하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내게 아버지는 창피해서 항상 숨기고 싶고 원망만 하게 되는 미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조그만 용달 트럭으로 쌀을 배달하셨다. 내가 다닌 초등학교는 도심이 아니라 외지에 있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1시간가량 달려야 도착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학생들은 버스 대신 부모님 차를 타고 등하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매일 아침 내게 “아빠가 데려다줄까?” 물으셨지만 친구들은 승용차를 타고 등교하는데 나는 용달 트럭을 타고 학교 앞에서 내리는 게 창피해서 “내가 알아서 다녀올게”라고 차갑고 통명스럽게 말하고 잽싸게 집을 나서곤 했다.

내가 아버지를 멀리한 것은 아버지의 직업 때문도 있지만 엄하고

무뚝뚝한 아버지의 성격이 너무 싫었기 때문이었다.

매일 수십 킬로의 무거운 쌀 포대를 짊어지고 여러 집에 배달하며 몸이 너무 고되다 보니까 퇴근길 아버지 손에는 항상 소주병이 들려 있고 술만 드시면 엄마에게 잔소리를 몰아치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싫었다.

엄마와 아버지는 큰 소리로 다투시고 나는 엄마와 작은 방으로 피해 있다가 아버지가 빨리 취해 잠드시기만 기다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교하고 집에 왔는데 식탁에 엄마 메모가 있었다.

<아빠가 일하시다가 다쳐서 엄마는 병원에 다녀올 테니까 너 먼저 저녁 먹고 기다리고 있어.>

그때 순간적으로 ‘아버지가 심하게 다치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아니라 ‘며칠 입원하셔서 얼굴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늦게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당분간 아빠가 일을 못 하게 될 것 같아. 엄마가 다음 주부터 식당에 일 나가니까 혼자 집 잘 지킬 수 있지?”하고 물으셨다.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살짝 다치신 게 아니라 쌀 포대를 메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고 결국 한쪽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집에서 누워 계시기만 했다. 엄마는 생활비가 급해 매일 주방일 마치고 음식 찌꺼기가 된 옷차림으로 퇴근하셨다.

내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더 깊이 자리 잡은 것이 이때부터였던 것 같다. 엄마가 고생하는 것이 모두 아버지의 무능력 때문이라 생각했다. 아버지에 대한 나의 마음이 완전히 달하면서 대화가 단절되고 나는 성인이 되면서 번듯한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다.

내게 경제적 능력이 생기자마자 나는 집을 나와 자취를 시작했다. 매일 말없이 누워 어두운 표정만 짓고 계신 아버지를 보지 않아도 된

다는 생각에 허름한 반지하 내 자취방도 무척 값지게 느껴졌다. 엄마가 보고 싶으면 따로 밖에서 만났다.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동네 마트에서 배달 일을 다시 시작하셨단다. 나는 “그동안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못 했는데 이 제라도 해볼 생각인가 보네?”라며 가시가 돋힌 말을 서슴없이 했다.

시간은 다시 흐르고 나도 결혼하고 아버지가 되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가장이 되어 보니 한 가정을 책임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내 꿈이었던 ‘친구 같은 아빠’가 되는 일도 육아를 시작해 보니 마음같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 아이는 나에게 서슴없이 다가와 주어 덕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때 우리 아버지도 무척 외롭고 힘들었을 텐데 그때 내가 만약 아버지께 살갑게 다가갔더라면 우리 부자 사이가 더 나아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던 어느 날 아침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화장실 문 앞에 쓰러져 있다는 연락이었다. 내가 바로 119에 연락해서 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1시간도 안 되어 결국 아버지는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셨다. 이제 내가 반성하고 아버지께 다가가려 하니까 아버지는 뭐가 그리 급하셨는지 하늘 나라로 가버리시고 말았다.

장례를 마치고 부모님 댁으로 아버지 짐을 정리하러 갔는데 엄마는 내게 통장 하나를 주셨고 그 안에는 1,52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이게 뭐냐고 물으니 아버지가 마트 배달 일을 하며 3년 모은 돈인데 2,000만 원이 모이면 내게 주겠다고 하셨단다.

통장 앞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나 못되고 한심한 아들이었는지 후회가 밀려왔다. 나는 그대로 방바닥에 머리를 박고 아기처럼 한참을 소리 내어 울었다.

아버지 휴대폰을 처음으로 열어봤는데 바탕 화면에는 대학 졸업식 때 학사모를 쓰고 찍은 내 사진이 담겼고 내 이름은 '우리 아들'이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통화 목록을 한참 내려 봐도 '우리 아들'이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내가 먼저 전화도 하고 안부도 여쭈어야 했는데 아예 연락 자체를 하지 않아 내 이름은 통화 목록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다.

이제야 아버지의 입장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서서히 아버지에게 다가가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늦어 벼렸다. 이제껏 아버지와 둘이 속 깊은 대화 한 번 하지 못했고 소주 한잔 기울여 보지 못했다.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던 버킷리스트였는데 이제는 영영 해 볼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며칠 후면 아버지가 내 곁을 떠난 지 12년째 되는 날이다. 아버지가 좋아하신 메밀전병에 막걸리 한 병 들고 아버지 계신 곳으로 찾아가리라.

“아버지~ 거기선 두 다리로 좋아하던 등산 자주 하며 잘 지내시죠? 아버지께 다가가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아들이라 죄송합니다. 언젠가 다시 아버지와 만나게 될 때 제 진심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항상 그립고 늘 보고 싶습니다. 못난 아들을 부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Letter 04

어머님의 밥솥

김혜원 | 대구광역시

어머님이 치매를 앓으신 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홀로 남겨진 어머님을 위해 시골집에 CCTV를 설치하고 대구에서 어머님을 관찰하는 중입니다. 물론 시골에도 막내 도련님이 있고 직장에 다녀오면 어머니 밥을 챙겨 드리고 약도 챙겨 드리죠. 그래도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되어 설치했습니다. 요양보호사님이 가시고 나면 저는 화면으로 어머님을 더 자주 보는데 어머님이 하시는 일 중에 저의 마음을 찡하게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매일 오후 5시가 넘으면 어머님은 어김없이 전기밥솥 뚜껑을 열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씀으로 “아고… 밥을 해야 하는데 이 를 우짜지? 밥이 하나도 없네?” 하십니다. 어머님은 식구들을 위해 밥을 하신 지 60년이 넘으셨기에 노인정에서 돌아와도 마실을 나갔다



돌아와도 오후 5시만 넘으면 하루도 빠짐없이 밥통 뚜껑을 열어보세요. 물론 어머님이 밥을 하실까 봐 쌀도 감추고 코드도 미리 뽑아 놓았지요. 그런데도 매일 어머님의 “아고~ 내가 밥을 해야 하는데 깜빡 잊어줫네”라는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참 착잡해집니다.

지난 추석에도 내려가서 어머님에게 밥을 차려 들으니 저에게 “아고~ 이렇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에게 “어머님이 자식들에게 늘 이렇게 밥을 차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렇게 대접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 하셔도 돼요. 당연한 겁니다”라고 하니 어머님은 배시시 웃으셨어요. 그런 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자식들 밥하느라 너무 힘드셨죠?”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내 자식 입에 들어가니까 너무 즐거웠죠.”

“그럼 시부모님 밥상 차리느라 힘드셨죠? 밥하는 거 힘들잖아요”라고 하니, 어머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면서 “내 남편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분들한테서 나왔는데 당연히 밥상을 차려 드려야죠. 밥하는 거 힘들었어도 당연히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을 보는 데 정말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치매는 기억을 잊어버리지만 자기에게 좋았던 일, 자기에게 잘해줬던 사람들에 대한 감정과 사랑은 절대 잊지 않는대요.

85세인 어머님은 이제 더 이상 밥을 차리지도 못하고 본인의 밥도 누군가가 챙겨줘야 하는 형편인데도 주무시다가도 저녁 시간이 되면 으레 부엌으로 오십니다. 그리곤 매일 밥솥 뚜껑을 여시는 건 어머님의 살아 있는 존재 이유였고 살아가는 희망의 끈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자식 밥도 귀찮아 배달이니 인스턴트니 편하게 밖에서 해결하길 바라고 남편 밥도 세 끼에서 두 끼로 줄이는데 가족에게 밥을 차려 주는 일이 즐거운 자기의 삶이었다고 말씀하시는 아픈 어머님의 웃음은 저의 마음을 반성하게 했어요. 치매는 정말 과거의 기억과 오늘의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일뿐 사람과의 관계와 그 사람의 애정과 사랑했던 기억은 몸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걸 더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곁에 남아 계셔서 너무 행복하고 그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우리에게 전해져 이번 겨울은 그리 춥지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오늘은 또 무얼 하시려나 저는 매일 그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Letter 05



제주살이

유부현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

“쿵 따라~ 쿵따라~ 쿵따라~ 쿵따!”
구음과 함께 몸도 살짝살짝 움직여 본다. 궁채를 들고 1단계 2단계 3단계 장구를 친다. 내 안에 다른 내가 장구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다.

이곳은 제주 서귀포 노인복지회관 ‘고고 장구반’이다.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3개월 정도 되니 이제 감이 잡힌다. 재미도 있고 박자를 놓치지는 않고 장구를 잘 치는 날이면 집에서도 설거지할 때나 빨래 할 때 장구 리듬을 기억하면서 자꾸만 몸을 덩실덩실 움직이게 된다.

오늘은 장구반 선생님이 행복 나눔 콘서트로 재능 기부를 하는 날이었다. 우리 장구반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이 무대에 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응원하러 갑시다!” 하며 수업이 끝나고 우르르 다 같이 가기로 했다.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주한 지 2년 정도 된 새내기 도민이다 보니 아직 이 나이에도 주뼛주뼛 제주살이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얼떨결에 따라가 보았다.

우리 선생님이 재능 기부로 공연하는 장소에는 깜짝 놀랄 정도로 제주 토박이 노인들이 많이 와 있었다. 자리도 없고 낯설기도 해서 그냥 뒤돌아 집으로 오고 싶었다.

그래도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와 서로의 주름진 손을 꼭 붙잡고 서 있는데 안내하는 분이 “어르신, 여기 와서 앉으세요” 하면서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자리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멀찍이 거리를 둔 채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뒤통수에서 불호령이 떨어진다.

“일어서라!”

“네? 저요?”

“그래. 일어서라!”

“아… 네….”

무섭게 생긴 할머니가 호통을 치며 나에게 일어서라고 했다. 영문을 알 순 없었지만 아마도 당신 자리로 짐해 놓은 자리였나 보다.

나는 전학 간 아이가 낯선 환경에서 쭈뼛거리듯 머리카락이 바짝 선 채로 “왜요?” 하고 묻지도 못한 채 친구 곁으로 도망치듯 갔다.

“앉아 있지. 왜 왔어?”

“몰라. 어떤 할머니가 일어서라 해서 일어서서 왔어. 나 야단맞고 왔다.”

“너도 할머니잖아.”

“그렇긴 한데 찍소리를 못했다.”

다리가 아파서 친구 자리에 서로 번갈아 앉아가며 구경을 이어갔다.

공연은 아주 재미있었고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으로 출연한 우리 장

구 선생님의 무대였다. 선생님은 장구도 노래도 잘하는 팔방미인! 선생님이 신명 나게 하시자 사회자는 흥을 돋우며 말했다.

“자자~ 모두 일어서세요~”

나 역시 신이 나서 벌떡 일어나 손뼉을 치며 리듬을 타 보았다. 그 때 갑자기 뒤에서 또다시 불호령이 떨어졌다.

“앉으라!”

“네? 저요?”

“그래. 앉으라.”

“아, 네.”

이번엔 뒤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가 호통을 쳤다. 또 깜짝 놀랐다. ‘오늘은 야단맞는 날인가 보다’ 싶었다.

‘씨이~ 나도 할머니인데… 자격이 돼서 온 건데…’

크게는 말하지는 못하고 무서워서 속으로 구시렁거렸다.

내 나이 75세. 이 나이에 야단맞는 것이 화나는 것이 아니라 우습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다. 서울에서 온 친구와 둘이 머리를 맞대고 낄낄거리며 웃었다. 마치 5년 후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공연이 끝나고 노인들에게 무료 배식 시간이 되었다. 식사 장소는 비좁은데 서로 들어오려고 해서 난리였다.

“친구야, 우리는 나가서 먹자. 우리 둘이 나가면 다른 두 분이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자 친구는 서러운 아이처럼 입을 빼쭉 내밀고 대답을 안 한다.

“너, 여기서 먹고 싶어?”

“응.”

“아이고, 두야!”

이런 상황을 눈치챈 천사 같은 우리 장구 선생님이 당신이 앉았던

자리를 내어주며 옆자리에 있던 동료 분께 우리를 인사시켰다.

“이분들~ 우리 장구반 청담동 사모님들이셔~”

“아; 청담동 어디서 오셨어? 저는 서초동에서 왔는데~”

“아이고~ 아닙니다. 서울에서는 서대문에 살았어요. 선생님이 괜한 소리 하신 겁니다.”

서울 본토박이로 70여 평생을 살다가 뒤늦게 아이들을 따라와 제 주살이를 하고 있는 요즘 벌써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제 주 생활 중 낯선 것이 많다. 그중 가장 낯선 것은 눈을 뜨면 바다의 수평선을 매일 본다는 것.

‘바다를 보며 사는 삶이 이런 거였구나. 자주 보면 닮는다는데…’

출렁이는 바다를 보면 바다의 생기 있음을 닮게 되고 잔잔한 바다를 보고 있으면 서울에서 가져온 삶의 부침들이 어느새 저 바다에 사르르 녹아 나 또한 잔잔한 바다가 되는 것 같다.

가끔은 아들과 함께 효동 동부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나에게 이런 삶이 다시 주어질 줄은 몰랐다.

늙어보니 좋은 것도 참 많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소중하며 여성시대에 글도 올려본다. 이만하면 노년에 행복한 삶이라 해도 되겠죠?

Letter 06

나 어떡해

애청자

흔이 넘으면서는 소개팅도 안 들어오고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엄마가 선 자리가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바로 상대 남자분이 외식을 못한다는 거였어요. 외식을 하면 몸에 두드러기가 심하게 나서 몇 년 전부터 아예 외식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먹는 낙으로 사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 나랑은 안 맞겠네' 싶었지만 지금 찬밥 더운밥을 가릴 때가 아니라서 선을 보겠다고 했어요.

밥을 든든하게 먹고 약속 장소에서 남자분을 만났고 카페에 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어요. 예전엔 남들처럼 외식도 하고 저처럼 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외식만 하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병원도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특별한 병명은 못 찾았다고 합니다. 저도 텔레비전에서 통증은 있는데 병명은 모르는 병도

많다고 봐서 ‘그런 부류의 병인가 보다’ 하며 아픈 건 아니니 특별히 문제 될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자분도 저도 서로 호감이 있었고 세 번째 만남에서 남자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이런 점을 이해해 준다면 만나보고 싶다고요. 저는 고민은 됐지만 그 사람이 좋았기에 진지하게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막상 만나 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연인이 데이트를 하면 절반은 맛집에 가고 먹는 재미가 있는데 그걸 못하니 좀 답답하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만나면 늘 카페에 가거나 산책하기, 드라이브, 공원 가기 등밖에 못했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이 있어도 가질 못하고 바라만 봐야 했죠. 밥때가 되면 헤어져야 하는 게 아쉬워서 제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우리 각자 집에서 밥을 싸와서 먹는 거 어때요?”

그는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공원 벤치에 앉아 밥을 먹는 흔치 않은 데이트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먹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집에서 못 먹는 음식, 예를 들면 양갈비, 푹 고아 끓인 추어탕이나 베트남 음식 같은 거요. 그런 걸 같이 못 먹으니 아쉬웠지만 ‘먹는 게 전부는 아니니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도 자신을 배려해 주는 제가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저는 아직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추운 겨울에는 공원 벤치에서 도시락을 못 먹겠죠. 그럼 우린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되지만 이런 고민도 사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솔직히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 사람의 선한 웃음과 목소리가 자꾸 눈에 아른거려서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저 사랑에 빠졌다 봐요. 그 사람과 만난 지 곧 백일이에요. 참, 데이트 안 하는 날에는 저 혼자 외식하러 간답니다.

Letter 07

열리지 않는 아이들의 방

박영옥 | 경기도 시흥시

꽃 게가 제철이라 값도 저렴하고 살이 꽉 찼다길래 꽃게찜을 했다. 아들딸이 꽃게를 아주 좋아해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나름 비린내도 덜 나게 정성을 들여 큼지막한 거로 다섯 마리를 쪘다. 꽃게찜이 뜰 들고 있을 즈음 아들 딸을 불렀다.

“애들아~ 밥 먹자! 맛난 꽃게찜 했어~ 어여 와~.”

애들한테 맛있는 꽃게 먹일 생각 때문인지 한껏 부푼 나는 목소리 톤도 올라가고 뭔지 모르게 흥얼거리듯 기분이 좋았다. 식탁에 상이 다 차려졌는데 우리 아이들은 대답이 없다.

“아들 딸~ 저녁 먹어. 엄마가 맛있는 꽃게찜 했다니까~.”

남편이 식탁에 앉길래 밥공기를 내밀며 한소리를 했다.

“저 녀석들은 왜 밥 먹으라는데 나오지를 않는겨?”

“귀에 또 뭐 꽂았나 보지 뭐!”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듯 시큰둥 대답하는 남편.

“으이그 내가 못 살아. 따뜻할 때 먹어야지 식으면 비린내 나는데.
도대체 뭐 하느라 대답들이 없어? 없기를!”

커다란 접시에 꽃게를 먹기 편하게 잘라 놓던 나는 비닐장갑을 어렵게 빼고 애들 방으로 씩씩거리며 돌진했다. 문을 벌컥 열고 싶었으나 역시나 애들 방문은 꽉 잠겨 있다. 똑똑똑.

“야, 아들! 밥 먹어. 몇 번을 불리?”

소리쳤지만 대답 없는 너, 아들 녀석. 쾅쾅쾅. 문을 두들기며 또 소리를 지른다.

“야, 이눔아! 밥 먹으라고! 귓구녕에 뭘 꽂은 거여?”

그래도 문도 열리지 않고 아들의 모습은 코빼기도 뵈질 않으니 식탁에 널브러진 채 자꾸 식어만 가는 꽃게를 보면서 난 성난 황소처럼

주방 한쪽에 있는 이쑤시개를 들고 아들 방 앞으로 돌진했다. 이쑤시개로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역시나 아들의 커다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엔 요란스레 무언가 폭발하고 총알이 날아가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귀에 헤드셋을 낀 아들의 손은 키보드에서 현란하게 움직이고 몸도 좌우 앞뒤로 장면 따라 움직거리는가 싶으면서 입으로는 또 친구들하고 무어라 무어라 떠들어 가며 아이고~ 가관이다. 오른쪽 손에 온 힘을 다해 등짝 스매싱을 날리며 내 입도 폭탄을 날린다.

“아이고, 이눔아! 티브이에서 나오는 폭탄 터지고 미사일 나오고 이런저런 소식만 봐도 심란스러워 죽겠구먼 뭐가 좋아서 게임도 이딴 걸 하냐? 귀구녕엔 적당히 꽂아야지! 밥 먹으라고! 밥! 밥!”

두 번째로 씩씩거리며 역시나 이쑤시개로 문을 열고 들어간 딸 방. 아이고~ 우리 딸! 방 여기저기엔 온갖 벗어놓은 옷들이며 책이며 과자 가 나뒹굴고 있다. 딸은 뭔 방송을 보는지 컴퓨터 앞에서 이어폰 낀 채 깔깔거리 가며 손으로는 채팅을 해 가며 얘도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들한테 쓰고 남은 내 나머지 힘을 다시 모아 딸한테도 등짝 스매싱을 날린다. 화들짝 놀란 딸에게 역시나 내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야~ 밥 먹으란 소리를 몇 번이나 한 줄 알어? 도대체 남의 집 남의 방도 아니고 말이야. 혼자 있는 방인데 적당한 소리로 양 들으면 되지. 뭘 그렇게 귀에 꽂고 듣느라 밥 먹으란 소리를 못 들어? 엉?”

엄마한테 맞은 등짝을 부비며 식탁에 앉는 아이들에게 다 식어가는 꽂게를 보며 나는 옆에 들뜬 목소리를 더 높였다.

“아니, 대강 들으면 되지 뭘 그리 다 이어폰을 끼고 있냐? 도대체가 도둑이 들어와서 다 가져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놈의 방문은 어째 그리도 잠가 놓는겨? 내가 내 집 방에 들어가면서 맨날 그렇게 문 따고 들어가야 하겠나? 게임을 하는 것도 다 알고 음악 듣는 것도 다 알

고 뭘 하든 뭐라 안 하니까 문 좀 잠가 놓지 말어 좀! 그리고 그렇게 볼륨을 크게 하고 있으면 귀에 얼마나 안 좋겠니? 좀 적당히 해. 노크는 고사하고 문이 부서지라 두드려야 들을까 말까 하면서!”

그리 열변을 토하는 내게 아들이 부채질을 한다.

“뭐… 도둑이 들어와도 가져갈 것도 없지 않아요. 우리 집?”

딸도 내 속을 들키운다.

“엄마 아빠가 노크도 안 하고 갑작스레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잠그는 거지요!”

노크하고 들어가는데 왜 잠그냐 물으니 딸이 또 그런다.

“노크하면 뭐 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냥 열고 들어오시면서 뭘~”

어휴~ 앞으로는 노크하고 대답 듣고 들어갈 테니 문 좀 잠그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며 일단락을 지었다.

하지만 그러면 뭐 하나. 역시나 아이들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근다.

빨래를 개켜서 자기네 옷을 갖고 들어가려다가 열리지 않는 문을 보며 노크해도 문을 쾅쾅 두드려도 대답 없는 아이들 방을 보면서 오늘도 한숨이 푹푹 머릿속엔 스팀이 꽉꽉 올라온다. 무얼 어떻게 듣길래 그렇게 문을 두드려도 못 듣는 것인지? 게임을 하든 뭘 하든 다 큰 성인들인데 엄마가 뭐라 하면 얼마나 뭐라 한다고 그렇게 착실하게 방문을 잠그는 것인지 원~ 속이 터지려는 걸 간신히 참는다.

남의 집 자식들도 다 그런가. 우리 집 아들딸만 유난히 그런가. 어쨌거나 귀에 좋지 않을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나? 얘들아, 제발 너무 큰 볼륨으로 이어폰 사용은 조심하자. 그리고 문 좀 적당히 잠가. 니 엄마, 속 터진다.

Letter 08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며

송종숙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이 밤, 비바람이 거칠게 내린다. 백발의 엄마가 아주 작은 체구로 옆으로 누워서 가늘고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낡은 이불을 어설프게 반쯤 덮고 주무신다.

난 먹먹한 마음으로 한참을 지켜보다 장롱 아래 칸에 고이 모셔둔 꽃분홍색 이불을 꺼내 헌 이불을 걷어내고 새 이불을 살짝 덮어드렸다. 엄마는 자다가 이불에 실수할까 봐 매번 헌 이불을 덮고 헌 옷을 입는다.

평소에 엄마는 주변 사람들 도움과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혼자 집에 계셨다. 그런데 엄마가 최근 들어 여러 사정으로 혼자 계실 수가 없어서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주말에 보내드리기로 결정했는데 엄마를 요양원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니 어찌나 마음이 아픈지 이젠 더 이상 이 집에서 엄마와의 일상

이 없다고 생각하니 슬프고 가슴도 아프다.

고민 끝에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걸 2주 정도 미루고 직장에
다 사정을 얘기하고 10일 정도 휴가를 내서 요즘 엄마랑 하루하루 보
내고 있다.

오늘은 닭죽, 내일은 팔칼국수, 국수, 호박죽, 추어탕 등 부드럽고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만 해드리며 하루하루를 알차고 소중하게 보내
고 있다.

앞으로는 엄마하고 더 이상의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
급해지고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소중한지.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엄마, 요즘은 요양원도 가정집처럼 깨끗하
고 편안하고 아주 잘해준대.” 그랬더니,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내가 요양원으로 가야지. 너도 편안하지….”

엄마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저 자식 걱정, 내 걱정을 하며
괜찮다고 하신다.

잠자는 엄마를 가만히 지켜보며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중얼거리며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이
글을 쓰면서 다짐한다. 요양원에 자주 가서 엄마를 만나겠다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성시대 진행자 두 분과 여성시대 가족
들에게 이 글을 쓴다.

이 빔, 오늘따라 내 마음을 아는지 하늘이 나 대신 많이 울어준다.

- 두서없이 내 서러움에 몇 자 적는 못난 딸, 종숙

Letter 09

나는 지금 철드는 중

안근일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달 이 바뀔 때마다 달력을 한 장 한 장 뜯다 보면 달력이 몇 장 안 남아서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나 싶은데 올해는 유난히 더 눈 깜짝 할 사이에 시간이 달아난 듯하다. 2023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겨울이라니 곧 있으면 내가 53살이 되고 결혼한 지는 27년 차라니 맙소사! 시간아, 나한테 허락 좀 맡고 가면 안 되겠냐.

20대는 친구들과 밤새도록 술 마시며 청춘을 보냈고 30대는 결혼해서 알콩달콩 사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으며 40대는 가장으로 살면서 애들 학원비 버느라 야근을 밥 먹듯이 해서 어찌 세월이 가는지도 몰랐다.

지금은 하얀 눈이 내려앉은 듯 검은 머리보다 흰머리가 더 많은 중년의 아저씨가 되었고, 어떻게 그 세월을 보냈나 싶지만 ‘그때가 힘들어도 참 좋았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는 다 커서 말 없는 자식 뒤



통수만 바라보는 애비가 된 지금 애들하고 한 상에 둘러앉아 밥 먹던 그때가 참 그립다.

아내하고는 결혼하고부터 성격이 안 맞아서 얼마나 싸웠는지 모른다. 친구들 불러놓고 집들이하다가 둘이 나가서 싸웠다. 내 성질에 못 이겨 아파트 현관문 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기도 했다. '너 없이는 못 살아'로 시작한 연애가 '너 때문에 못 산다'로 결혼생활 15년을 보낸 것 같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결혼기념일이라고 아이들 데리고 외식을

나왔다가 신호등 앞에서 티격태격하는 바람에 결국 밥도 못 먹고 집으로 왔는데 그때 무슨 일로 싸웠는지 아무리 기억해 보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난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들 보는 앞에서 좀 더 지혜롭게 굴었어야 했는데 참 철이 없던 시절이라 뭐든 네 탓 하기 바빴다.

연애 때는 오직 이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인천에서 살던 나는 서울로 출퇴근하던 여자친구를 위해 항상 퇴근 후 전철역으로 마중을 나갔고 내 차에 태워 데이트했다. 중고차여서 여기저기 하자가 많았는데 그 중의 가장 큰 하자는 운전석 옆 조수석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였다. 그래서 아내를 태우고 목적지에 내릴 때면 항상 내가 먼저 내려서 조수석의 문을 열어주었는데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 참 매너가 좋구나' 생각했단다.

그런 아내가 한 달 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담낭에는 혹이, 자궁에는 근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큰 병은 아니지만 이제 아내도 나도 나이가 들어감을 느낀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에서는 안 하던 검사들이 추가되고 나이 오십이 넘으니 대상포진 예방주사도 자격이 된단다.

결혼하면 손에 물 안 묻히고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고선 맞벌이를 한 지는 15년쯤 된 것 같다. 그동안 이것저것 공부해서 자격증도 따고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아내를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참 고맙다.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서로를 안쓰럽게 생각하는 '정'으로 사는 게 부부가 아닐까 한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하루 일과를 마치는 잠자리에 들 때면 오늘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다고, 이래서 저래서 힘들었다는 하소연도 하며 남편에게 아내에게 위로받는 삶이 진정한 감사고 행복이다. 요즘 내가 철이 드나 보다.

Letter 10

엄마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애청자

두 아이의 엄마인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사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강원도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여름방학에도 학교돌봄교실에 아이들을 보내야 했답니다. 그래서 바쁜 철이 끝나면 가까운 지역 펜션이나 공원에 다녀오는 늦은 휴가를 보냅니다. 멀리 가는 건 엄두가 안 나기도 했고 비용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멀리 여행 가게 된 계기가 있었답니다. 실은 저희 둘째가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는 더 힘든 것 도 있고 사람 많은 공공장소는 꺼려지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둘째 평계 를 대면서 어려운 과정은 포기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복지 혜택 팸플릿을 보니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이 있어서 ‘어? 이런 게 있다고?’ 하고 놀랐습니다. 장애아 가족의 여행을 지원해 주는데 일정이 정해진 테마 여행 가족 캠프가 있고, 가족이 직접 결

정하고 준비하는 자율여행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가는 이동은 힘들어서 자율여행에 대해 전화로 문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율여행 지원사업 신청하고 싶습니다. 끝났을까요?”

“당당이님 지역은 신청 가능한데 우선 배정되는 가정이 있을 경우 순위에서 밀려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자율여행 신청서 작성 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몇 주 지나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부모연대입니다. 총 4인 가족, 강원도, 2박 3일로 가시는 거 맞죠? 1인당 12만 원 총 48만 원 지원되고, 숙박비, 주유비, 식대, 입장료 등 여행과 관련된 지출만 가능하다는 점, 카드 영수증으로 전부 받으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행 보고서 제출하실 때 필요한 가족사진도 많이 찍어주세요.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고 연락해 주세요.”

담당자님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 저희는 정말 기뻤습니다. 저희에겐 숙박도 하고 바비큐도 해 먹고 관광지 입장료도 내고 휴게소에서 간식도 사 먹고 맛집 식당도 갈 수 있는 돈입니다. 평일에 여행하니 숙박비가 많이 들지 않았고 아이들도 아직 어려서 지출이 많지 않았습니다.

겁도 나고 설레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섞인 여행 준비부터 장거리 이동까지 아이들이 이렇게나 좋아하는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핑계만 대고 미뤘을까요. 많은 일이 있었던 우리 아이들, 학대 피해자였고 장애를 가졌고, 당당한 엄마로 살겠다고 했던 제가 어느 날부터가 계속 방구석으로 숨고 단절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러지 말자!’ 하면서도 현실의 벽에 한 번씩 꽉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감정 속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6시간 이상의 거리를 달리

고 달려서 넓은 바다를 보고 통일전망대에서 북한도 바라보며 DMZ 박물관에서 공부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북한과 철조망 같은 걸 이해할 날이 올 수 있겠지?’ 했는데 통일전망대에서 소망 자물쇠를 걸고 아들이 두 손 모아 기도하더군요. 무엇인가 느낀 거겠죠?

강원도의 드넓은 바다, 파란 하늘, 넓은 목장을 구경할 땐 비가 내리고 날씨가 흐렸지만 먹이를 잘 먹는 양들과 타조를 보며 깔깔 웃는 우리 아이들. 아이는 종종 엄마 손을 놓고 뛰어가려고 했지만 두 손 잡고 설명해 주고 위험을 알려주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들도 배워가는 거겠죠. 물가에 가면 무작정 뛰어가는 아들도 큰 파도를 보니 겁이 나는지 오히려 제 손을 꽉 붙잡더라고요. ‘감정이 생기고 느끼는 게 있구나…’ 싶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지역과 음식과 향기, 소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자극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희 첫째가 여행 마지막 날 불꽃놀이 할 때 그랬습니다.

“엄마, 여기 좋아요. 또 오고 싶어요. 그때는 동생의 생각주머니가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억할 수 있겠죠? 정말 행복해요!”

기특하고 대견한 우리 첫째. 아이인데도 저런 생각을 한다니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있으니,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잘 따라오고 질서도 지키고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행동도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장애아들에게는 다양한 자극과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용기를 낼 기회도 꼭 필요합니다. 그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천을 제대로 못 한 저를 반성하며 이번 여행의 기회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서 열심히 해 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좋은 여행을 도와주신 경남장애인부모연대에도 감사드립니다.

Letter 11

굳은살 박인 양말을 개며

박종석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는 저녁을 먹고 마른 지 오래된 빨래를 갤다. 옷가지, 수건을 먼저 개고 족히 수십 켤레는 될 양말을 갤다. 양말을 갤 때는 일단 짹을 맞춰 분류해 놓는다. 내 것, 아내 것, 막내딸 것을 먼저 개고 난 후에 늘 양이 가장 많은 큰딸 양말을 개다가 가슴이 저려 왔다. 큰 딸 양말은 짹을 맞춰도 짹이 아닌 것처럼 양쪽이 달랐다. 오른발 양말은 왼발 양말에 비해 앞코 바닥이 마치 굳은살 박인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 엉겨 붙어 있다.

중2 큰딸은 펜싱 선수다. 중학교 입학 후 학교 펜싱부에 들어갔다. 운동신경이 남달리 좋기도 하고 재미도 있는지 열심히 운동 중이다. 지난 3월 울산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 단체전 동메달을 비롯한 전국 대회 개인전 은메달 등 올해에만 메달 4개를 땄다.

펜싱 시작하기 전엔 마른 체형이었는데 지금은 허벅지와 종아리가

내 것만큼 굵을 정도로 몸집이 탄탄해졌다. 식사할 때 깨작대던 버릇도 없어지고 야식을 많이 먹는다. 그놈의 마라탕, 불닭볶음면, 생라면 등. 오늘도 야간 훈련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온 딸에게 삼겹살을 구워 주며 물었다.

“나윤아, 오른쪽 양말 바닥이 굳어 있는 건 팡트(팔과 다리를 길게 뻗어 찌르는 동작) 많이 해서 그런 거지?”

“응. 그렇지 뭐….”

“운동하기 힘들지?”

“응. 그렇지 뭐….”

“삼겹살 맛있어?”

“응.”

귀가하면 휴대폰에 코 박고 동영상 보고 채팅만 하는 딸이 심드렁하게 대꾸한다. 그러거나 말거나 양말 개며 가슴이 저릿했던 순간에 떠 오른 말을 해줬다.

“나윤아, 굳은살이라고 알아?”

“응? 그게 뭐야?”

“사람이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집중해서 오래 하다 보면 힘쓰는 근육 부분이 딱딱하게 굳는 거야. 그걸 굳은살 박인다고 해. 운동선수들이 손바닥이나 발바닥, 손가락 같은 곳에 굳은살 많이 박이는데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다는 ‘영광의 상처’ 같은 거야. 네 양말도 굳은살 엄청 나게 박였던데!”

“응? 아… 그럴 거야. 하하하~.”

굳은살 박인다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어떤 의미인지 구구절절 얘기해 주려다가 갈수록 시크해지는 딸의 모습에 아빠 마음에도 슬슬 굳은살이 박이나 보다.

Letter 12

고마워요, 젊은이

노문식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얼 마 전에 아내와 함께 승용차로 시골 친척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어느 할머니가 제법 큰 보따리를 들고 시내 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무거워 보였어요.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할머니는 시내버스 정류장에 가신다고 했습니다. 밭에서 나는 부추, 고구마순, 깻잎 등을 장날이라 시장에 팔러 가신다는 겁니다.

“할머니 타세요. 버스정류장까지 태워드릴게요.”

제 말에 아내가 얼른 내려서 승용차 뒤쪽에 짐을 실었습니다. 조금 가자 시내버스 정류장이 보여서 거기에서 내려드렸습니다.

문득 몇 년 전에 우리를 차에 태워준 두 젊은이가 떠올랐습니다. 같은 국도였거든요. 2년 전의 일입니다. 제법 쌀쌀한 날씨지만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오전에 고장 난 차 수리하고 나니 점

심때가 다 됐더라고요. 해서 이른 점심을 먹고 차를 타고 외곽에 있는 산으로 갔습니다. 산 아래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산에서 제법 떨어진 곳에 차를 대놓고 산까지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산 아래에서 우리 차 있는 곳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올 예정이었고요.

배낭에 넣고 간 카메라로 가끔 아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경치만 있는 것보다 인물이 들어가야 풍경도 살거든요. 5년 전 집 지을 때 허리를 다친 아내는 아직도 가파른 곳은 두려워합니다. 오르는 것은 괜찮은데 내려오는 게 더 힘들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높은 산은 아니었습니다. 정상까지 가고 싶었지만 포기하고 우리는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타지에 일 보러 간 딸애를 태우러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야 했거든요. 서두르면 딸애가 내려오는 버스 시간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시내버스가 한 시간에 한 번 오는 외곽이었어요. 제가 동네 어르신에게 시내버스 시간을 물었더니 “아이고 어찌나! 버스는 조금 전에 떠났는데” 하시는 겁니다. 10분 전에 떠났대요. 맥이 탁 풀렸습니다.

거기서 우리 차를 세워놓은 곳까지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50분을 더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도 없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했다는 딸의 전화를 받은 후였거든요. 게다가 시내 살던 우리도 2년 전에 시골 쪽으로 이사 와서 시내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았습니다. 택시 타기에도 먼 거리였어요. 뭐든 아끼는 딸이라 절대로 택시를 타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약한 아이라 약간의 추위도 못 견디는 체질이니 애가 탔습니다.

“밖에 나와 있으면 추우니까 안에서 기다려. 이따가 전화할게.”

그렇게 딸에게 전화해 놓고 우리는 승용차 있는 곳까지 걷기로 했습니다. 30분은 걸어야 할 거 같았어요. 아내 발걸음이 자꾸 쳐졌고

저 역시도 발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시내로 쌩쌩 달려가는 차들이 부러웠습니다. ‘지나가는 차 중에 나를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급해진 저는 달리는 차 앞에 얼굴을 보였지만 아무도 아는 체 하지 않았어요. 저는 밀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지나가는 승용차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어느 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면서도 제 얼굴을 보면 태워주지 않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인상이 안 좋은 편이거든요. 은행에 가면 경비가 저를 따라다니며 감시할 정도입니다. 구레나룻을 면도하지 않고 장인어른께 처음 인사드리러 갔더니 “웬만하면 그 수염 좀 깎고 다니게. 난 산적 두목이 온 줄 알았네” 하셨거든요.

차들은 그냥 지나가고 포기하려는 찰나 어느 승용차가 멈추었습니다.

“시간이 급해서 그러는데 우리 차 있는 데까지만 태워 주시면 안될까요? 조금 전에 버스를 놓쳤거든요.”

운전석에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고 옆 좌석에는 여자친구로 보이는 아가씨가 앉아 있었어요.

“태워 드리자.”

젊은이가 옆 아가씨의 동의를 구하는 듯 바라보자 아가씨가 서슴 없이 타시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구세주를 만난 듯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덕분에 차 있는 곳까지 편하게 올 수 있었죠.

“아들, 모르는 사람은 태워줄 필요 없다. 요즘 험한 세상이야. 행여 무슨 사고 나면 네가 다 책임져야 해!”

저는 운전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는데 두 젊은이의 행동을 보니 부끄럽더군요. 목포에서 구경 왔다는 은색 승용차를 태워준 이름 모르는 젊은 남녀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Letter 13

집주인 아줌마와 건년방 새댁

차혜련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견소동

19 80년 대전에서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 오면서 남편 회사 근처에 방을 얻으려고 빨간색 대문에 '전세방 있음'이라는 문구를 보고 초인종을 눌렀다. 대문을 열어주는 집주인 아줌마는 미인에 젊은 분이셨다.

“어서 와요. 방 구경해 봐요.”

그 말에 들어가 보니 부엌을 지나 큰 방이 하나 있고 그 방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여니 작은 방 하나가 또 있었다. 마음에 쏙 들었다. 집주인하고 우리, 딱 두 가구만 산다는 것이 더 맘에 들었다. 주인 아줌마가 내게 물었다.

“방이 맘에 들어요?”

“네, 방은 마음에 드는데요. 제가 집에 두고 온 아이가 둘이 더 있어요.”

그때 나는 셋째 아기를 임신한 만삭의 몸이었다.

“우리 아이가 7살, 4살인데 주인아주머니 댁 아이들과 싸우지 않을까 싶어서 안 되겠네요.”

“방이 마음에 들면 오세요. 애들이 싸우면서 사는 거지. 그런 걸 다 따지면 어떻게 살겠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 만 이천 원을 주고 왔다.

사실 그 전에 몇 집을 보러 갔다가 애들이 많아 방을 안 준다고 해서 그냥 왔었다.

그 며칠 뒤 이사했고 집주인 아이는 8살 딸과 7살 아들 남매였고, 우리는 7살 딸과 4살 아들이었다.

이사한 지 20일 만에 집주인 아줌마가 친정 가고 없는 날에 나 혼자 막내아들을 출산했다.

그렇게 집주인 아줌마 박근열 씨와 나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2년 넘게 살다가 막내가 3살 되던 해, 내가 미용실을 개업하면서 이사 나왔는데 정말 한 번도 아이들이 다투는 일이 없었다.

우리 아들은 주인집 아들에게 “현수 형, 형” 하면서 따라다녔고, 우리 딸도 한 살 많은 주인집 딸에게 “언니, 언니” 하며 잘 지냈다.

그 후에 미용실 하느라 송림동으로 신향동으로 이사하면서 거리는 더 멀어졌지만 늘 안부전화 하고 머리 손질도 하러 오시고 그렇게 지내다가 내가 미용실 접고 딸이 사는 강릉으로 이사하면서 멀어지게 됐다.

우리 아들도 강릉에서 요식업을 하는데 하루는 “엄마, 현수 형이 강릉으로 와서 식당 하고 싶어 하네요” 하더니 인천에 살던 집주인 아줌마도 손녀딸을 돌봐주기 위해 강릉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지에 와서 산다는 건 쉽지 않다. 나도 매일 미용실 손님들 머리 손질해 주며 살아온 세월이 35년인

데 일 그만두고 딸 있는 강릉으로 와서 ‘2년만 살다가 다시 인천으로 와야지’ 했는데 딸이 출산하면서 손주 돌봐주느라 5년 동안 살았다. 그때 외롭고 힘든 것을 경험했기에 두 분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지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주 뵈었다.

그러다가 내가 인천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이사를 3일 남긴 날, 두 분이 화장지 사 들고 와 거실 소파에 앉더니 “지유 할매가 인천으로 이사 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 하며 엉엉 우셨다. 옆에 있던 아저씨까지 엉엉 소리 내어 우셨다. 나도 같이 한참을 울고 같이 살날이 또 올 거라며 인천으로 왔다.

그런데 5살까지 키워준 손주가 하루도 빠짐없이 내게 전화를 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왜 나를 버리고 갔어요? 나도 데려 가세요. 매일 나 혼자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나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살지 않고 할머니랑 살 거예요.”

하면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우는 데 딸 얘기를 들어보니, 밥도 안 먹고 할머니한테 데려다 달라고 집 밖에서 들어오질 않는단다. 그 말에 5개월 만에 나는 다시 강릉으로 이사 왔다.

이사 온다는 말에 아줌마 아저씨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삿짐을 싣고 강릉에 도착하니 별써 두 분이 기다리고 있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코로나 감염병 3년 만에 우리 아들도 주인집 아들도 모든 것을 잊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라오스에 사는 누나가 오라고 한다고 주인집 아들은 아내와 딸을 데리고 지난봄에 이사 갔다.

손녀 돌봐주러 오셨던 두 분은 강릉에 살 이유가 없다며 형제들과 친구들이 있는 인천으로 다시 간다고 했다. 가지 말고 같이 살자고 붙잡을 수도 없고 그 말은 들은 날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처음 방 얻으러 갔던 날, 첫인상이 차갑게 느껴졌던 집주인 아줌마는 너무너무 좋은 분이었다.

나보다 다섯 살이 많아서 이젠 “언니, 형부”라는 호칭을 쓰고 산다.

내가 친언니한테 못하는 속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사이가 됐는데 두 분이 인천으로 이사 가면 나는 또 어떻게 사나, 내가 인천으로 간다고 할 때, 두 분이 평평 울던 심정을 알 것 같고 이제는 내가 눈물이 나서 큰일 났다.

젊은 새댁으로 만난 지 벌써 44년. 서로 늙어가는 나이가 됐다.

며칠후 이사 가는 주인집 아줌마.

우리는 식구가 많아서 수돗물을 많이 쓰니까 우리가 요금 더 내겠다고 하면 아니라고 집주인이 더 내야지 무슨 소리냐고 하셨고, 나는 갓난아이가 있어서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자서 전기요금 더 드린다고 해도 아니라고 집주인이 더 내는 거라고 하던 맘씨 곱고 인정 많은 내 젊은 날의 주인집 아줌마. 박근열 언니, 늘 감사했습니다. 두 분 인천으로 가셔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드릴게요.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흐르네요. 남남으로 만난 우리 두 사람, 전생에서도 후생에서도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겠지요. 언니 사랑합니다.

- 강릉에서 차혜련 올림

Letter 14

방송 후 달라진 남편

애청자

어 제 저녁밥을 먹으면서 남편은 국이 좀 깠는지 옆에 있는 물을 부어서 먹더라고요. 다른 때 같으면 “이거 물 좀 더 붓고 다시 끓여~ 어우 짜~” 이래야 정상인데 웬일인가 했죠. 그래서 제가 “이리 줘. 물 붓고 다시 끓일게~” 했더니 “아냐, 괜찮아. 이렇게 먹으면 되지 뭐~” 하더라고요.

‘거참 희한하네. 혹시 방송을 들었나’ 생각했어요. 사실 제가 얼마 전 여성시대 ‘님과 함께’에 반찬 투정하는 남편을 어찌하면 좋겠냐 자문을 구한 적이 있거든요.

식사 후 남편은 약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혹시 말이야… 내 얘기 방송에 냈어?”

“뭔 얘기? 당신이 유명인사도 아니고 방송에 나올만한 일이 뭔데?”

저는 시치미를 떼고 남편 말에 귀 기울이는 척하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내가 엊그제 여성시대 ‘님과 함께’를 들었는데 어떤 아내가 남편이 반찬 투정한다고 방송에서 있는 대로 흉을 보더라고. 그러니 까 넷이서 별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완전 나쁜 놈으로 만들더라고~.”

“그래? 나는 못 들었는데~ 근데 왜 그게 내가 보낸 거라고 생각 해?”

“아니~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이고~ 나는 문자 암만 보내도 한 번 뽑히지도 않아서 아예 안 보내.”

“그래? 근데 말이야. 그 상담하는 목사님과 스님, 그 양반들은 여자가 혹시라도 집을 나가려고 하면 잡아 앉혀야 되는 거 아니? 그런데 그 아내 보고 한 삼일 나가 있으래. 뭐 주지 스님도 반찬 투정하면 밥 하는 보살님이 아예 절을 나간다면서~. 나 참~ 아니 상담인데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야 하는 거 아니?”

“아유~ 재미있으라고 하는 거지. 그런다고 집 나가는 여자가 어딨어?”

“그리고 말이야, 양희은 씨 우리가 좋아하잖아.”

“그렇지. 언젠가 예술회관에서 콘서트 할 때 당신이 크게 대답했잖아. ‘감사합니다~’라고.”

“그런데 방송에서 ‘이런 인간을’이라는 말을 읽으면서 그렇게 재미 있어하면서 웃더라고.”

“아니~ 방송을 웃으면서 하지 올면서 해? 근데 그게 당신하고 뭔 상관인데?”

“아니~ 그냥 그랬다고~. 그리고 그 김일중 씨 말이야. 온지 얼마 안 되는데 옆에서 되게 깐족거리면서 막 맞장구를 치는 거야.”

“아니~ 당신이 무슨 평론가도 아니고 왜 진행자를 평가해? 재미있게 잘만하더니만~.”

“근데 그거 진짜 당신이 보낸 거 아냐?”



“보냈으면 선물이 왔겠지. 선물이 안 왔잖아~.”

사실 저는 보내주신 별다방 커피와 케이크를 언제 먹을지 생각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남편은 긴가민가하면서도 일단은 아닌 걸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고는 반찬을 먹다가 식초가 좀 더 필요하다 싶으면 자기가 얼른 일어나서 식초를 꺼내 몇 방울 더 넣어서 먹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방송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줄은 몰랐습니다. 자기 얘기가 아닐 거라면서도 40년 넘게 투정하던 버릇이 많이 고쳐졌으니, 말이에요. 여성시대에 감사합니다.

Letter 15



2층 새댁네와 13층 우리의 동거

김금이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노 부부는 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2층 새댁이 다녀갔군!' 하고
금방 알 수 있다. 밥솥이 벌러덩 열려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같은
동 2층 새댁은 13층에 올라와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빼리빼리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그리고 제일 먼저 냉장고 문을 열고 탐
색했겠지.

"오매나, 고기가 있네! 가져가야지. 소주도 캔 맥주도 김치도 가져가
야지. 밥솥에 밥도 뭉땅 퍼가자!"

아마 그랬을 것이다.

"여보, 밥솥이 비었네. 물 한 모금 먹으려고 냉장고 열었는데 고기도
사라졌어. 당신 구워주려고 했는데. 소주 한 병도 있었는데 없어요. 어
머나 내 맥주도 없어졌네."

밥심으로 사는 나이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배고프고 아무것도 하

기 싫은데 2층 새댁아, 밥 털어간다고 문자라도 남겨주지. 그러면 덕분에 외식이라도 하고 들어올낀데.

“배고프다. 언제 밥 하노? 오늘도 밥통 털렸으마 라멘 끼리라.”

나는 문자를 보낸다.

<2층 새댁아, 앞으로 밥 가져가거든 밥 좀 해놓고 가라이. 내 밥 건들지 말그라. 알았나? 그리고 너도 밥솥은 사라. 사!>

주말, 문자가 울린다.

<엄마! 오늘 저녁 뭔데? 올라갈게. 밥 같이 먹자요!>

주말이라 사위가 왔나 보다. 나는 냉장고 속 모든 재료를 꺼내 요리해서 늦은 저녁을 가족과 모여 먹었다. 갓 지은 따끈한 밥과 매운탕에 소주도 한잔씩 하면서.

2층 새댁은 맛나게 먹고는 맛있다며 남은 음식을 접시째 챙기고 밥솥에 밥 퍼가는 것도 잊지 않는다. 나는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남편 밥을 새로 해야겠다.

또 다른 날, 오늘은 야구 응원한다며 2층 새댁이 13층에 올라왔다. 기아와 삼성의 경기. 2층 새댁은 기아 편, 13층 남편은 삼성 편. 게임이 시작되었다. 4회 초 삼성 공격이다.

“구자욱! 자신 있게 한방 쳐라! 쫓쫄 볼인데 와 치노?”

잠시 후 구자욱 선수, 딱 소리와 함께 안타를 치고, 김현준 선수가 달려 달려 흠으로 들어온다. 삼성이 1점 앞서간다.

“강민호, 김지찬, 한방 쳐라, 쳐!”

“어이구, 누가 들으면 올림픽인 줄 알겠네!”

경기는 삼성이 앞서가면서 9회 말 기아의 공격. 소크라테스 선수가 방망이로 공을 때렸다. 뻐 하는 소리가 나오고 담장을 넘긴다. 1루에 나성범, 2루에 최형우, 영차영차 달려라 달려. 3점 홈런.

“짜라짜라 짜짜짜~.”

노랫소리에 고함소리가 난무하더니 경기는 역전으로 기아가 승리했다. 잠시 후 2층 새댁이랑 남편의 신경전이 시작됐다.

“여보, 소주 없나? 열받는다. 다 이긴 경기를 우째 역전을 당해 버리노? 오승환이니, 잘 좀 던지지 그랬나~.”

2층 새댁은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며 신이 났다.

“딸랑구야, 니 내일부터는 13층에 올라오지 마라.”

하지만 2층 새댁네는 텔레비전이 없다. 아마도 코리안시리즈까지 계속 야구 보러 올 거다.

오늘도 2층 새댁이 냉장고를 털어간다.

“엄마, 맥주 하나 가져갈게. 오, 고기도 있네, 밥도! 냄비에 이게 뭐꼬? 된장찌개네.”

새댁은 냄비째 들고 내려간다. 2층 새댁네는 주말부부라 살림을 거의 하지 않는다. 13층에 올라와 자주 털어간다. 오늘도 야구 경기가 있으니 2층 새댁이 13층으로 올라올 것이다. 나는 미리 문자를 보냈다.

<2층 새댁아, 밥 묵었나? 닭볶음 했다. 밥 무려 올라온나. 그리고 이제 냉장고 털어가지 마레이. 밥도 털지 말고, 알긋나?>

사위가 생겨서 좋다. 든든한 아들 같다. 작년에는 가족여행도 다녀왔다. 처음 가본 제주도 여행이었다. 2층 신혼부부와 13층 노부부는 행복하다.

“2층 새댁아, 건강하고 늘 행복해라!”

“아들 같은 사위, 부산에서 포항까지 주말부부 하느라 고생이 많지? 항상 안전운전하고 건강하자!”

“남편, 비 오면 일하러 못 간다고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 금연, 꼭 성공하기를 바래요.”

우리 식구, 주머니에 사랑을 넣어가지고 다니자. 행복한 가족으로 살자.

Letter 16

20년 장사 끝내신 엄마

임혜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20년 동안의 장사를 마무리하시는 엄마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고자 여성시대에 편지를 씁니다.

제가 10살 때부터 엄마 아빠는 치킨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아빠는 치킨을 튀기고 오토바이로 배달하러 다니셨고 엄마는 서빙을 담당하셨어요. 저는 학교가 끝나면 가게에서 맛있는 치킨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답니다.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납니다.

엄마는 예전부터 참 강하셨습니다. 제가 고1 때 아빠가 '암'이라는 병과 싸우고 있을 때도 엄마는 혼자 장사를 이어가셨어요. 새벽에 장사가 끝나면 엄마는 아빠가 입원해 계셨던 서울 병원으로 가서 밤새 아빠를 보살피셨고 다시 오후가 되면 안산에 있는 치킨집으로 출근하셨습니다.

엄마의 간절한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아빠께서는 1년 뒤 하늘나라로

떠나버리셨어요. 그때도 엄마는 장례를 마치고 바로 장사를 하셨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괜찮은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셨던 겁니다. 어느 날, 새벽에 엎드려 자고 있는 저를 끌어안으면서 평평 우셨어요. 엄마도 아빠가 무척 그리우셨던 거지요. 가게에 출근하면 아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곳에서 혼자 일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어떤 심정으로 버티고 버티다가 무너지신 걸까요. 그때 저는 어린 마음에 계속 자는 척을 했지만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마음으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도 엄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치킨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와 동생은 학교를 잘 마치고 희망하던 대학교까지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한 번 해보지 않은 채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전부 엄마 덕분입니다. 엄마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지금 제가 이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당신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단 한번도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았던 엄마. 20년간 운영하던 치킨집을 접으려니 심장에 구멍이 난 것처럼 마음이 허하다는 우리 엄마. 그런 엄마가 제 눈엔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엄마, 이제는 좋아하는 등산도 마음껏 다니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즐겁게 사세요. 엄마 옆엔 항상 예쁜 딸, 듬직한 아들이 있을 테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김마미,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제는 꽃길만 걸읍시다. 사랑합니다~. 김마미! 우리 가족 파이팅!

이달의 손편지

고마운 의사선생님

최은숙 | 경남 밀양시 북성로

저희에게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102세의 친정
어머니가 계십니다. 102세의 연세에도 눈도 밝고
귀도 잘 들리고 정신 또한 아주 맑은 현명하시고
자존감도 강하신 엄마십니다.

그런 엄마께서 6년 전에 밀양에 있는 윤병원에서
암낭암 말기라는 청천벽력같은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저희 자식들의 슬픔은 이루 말로 할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언니들과 남동생하고 가족 회의 끝에
엄마께서는 암낭암이라는 사실을 모르시게 선생님께
ущ부 드리고 암낭암 진단 받은 밀양 윤병원 그네와
김동원 선생님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6년동안 몇번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입원하셔서

기억 회복에 도움되는 처방으로 엄마께서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일정과 정신적인 위로로 휴식을 하다 나들듯이 또 아무렇지도 않게 가분 좋게 2~3년을 지내시고 또 조금 몸이 불편 하면 병원에 입원 하시고 그걸로 6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처음 암 진단 받았을때 김동완 선생님은 6개월 정도 생각하셨답니다. 엄마의 성격이 워낙 깔끔하고 약간 까탈스러운 분이셔서 남들에게 쉽게 마음을 여시는 분이 아닙니다. 김동완 선생님께서는 환자와 의사로써의 대화가 아니라 먼저 환자와 아이컨택 후 스킨쉽 즉 엄마께 미소와 능맞춤과 부드러운 음성으로 “어머니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하시면서 손을 잡아주시든지 아픈 곳이 있으면 그 곳을 쓰다듬어주시면 그 모습이 환자와 의사의 모습이 아니라 흥사 엄마와 아들의 모습 같아서 옆에서

보는 보호자도 절로 선생님께 믿음이 가고 존경심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지나 지난 8월 29일 배에 복수가 차서 다시 입원하게 되었는데 암이 여기 저기 전이가 되어 1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선생님께 큰 믿음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힘들 것이라 예상을 하셨는지 입원하신지 15일 정도 지나서 선생님이 회진하고 가신 후에 엄마께서 하신 말씀에 강명을 받은 인내가 "엄마, 선생님 보시고 올려니 엄마가 직접 말하세요." 하면서 회진 중이시던 선생님께 "선생님, 엄마가 하실 말씀이 많답니다. 일분만 시간을 내어 주세요." 하고 부탁드리니 키웠을 법도 한데 다시 엄마에게 오시니 엄마는 선생님을 보시고 눈물을 글썽이며 침대에 앉아서 두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부처님께 향장하듯이

진심으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셨답니다.

그 후에 그렇게 하고 열흘 정도 의식이 없으시다가
암의 고통도 없이 평안히 9월 26일 새벽에
성종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자식들은 엄마의 빈 자리가
가슴이 아파 지도록 슬퍼지만 밀양 윤병원 2내과
김동완 선생님께 저희 어머니께서 의식이 있을 때
저한테 하시 말씀을 꼭 ~ 전해드리는 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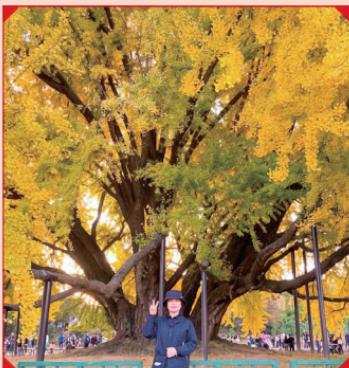
"김동완 선생님은 병도 치료해주지만 마음도 치료해
주는 의사 중의 의사 엄의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진단하실때는 6개월을 선생님은 생각하셨지만
6년이라는 시간을 더 사신 것은 엄마께서 김동완 선생님의
믿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6개월을 6년으로 최선을
다해 친절해주신 의사 김동완 명의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밀양에 계신 것이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성시대 사진방



[6687] 여기는 경남 통영인데 6남매가 600포기 김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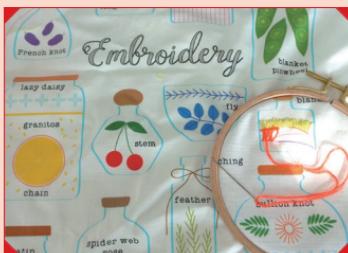
[5988] 여성시대에서 소개됐던 반계리 은행 나무 보러 갔었어요. 사람들을 많이 오셨던데요. 그래도 쓰레기 없이 깔끔하더라고요.



[2506] 홍삼 건강원하는데 오늘은 아버지 인삼밭에서 작업 중입니다. 5년 피땀 흘려 농사지으신 인삼 가격이 낮아 속상합니다. 담당이님들 인삼 많이 사드세요.



[2640] 고구마 세척하고 있어요. 고구마 많이 드세요. 건강에 좋아요^^



[9777] 유튜브 영상 보고 십자수 놓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만 잘 완성해 보려고요.



[0827] 오늘도 시장 한 모퉁이 국수집에서 멸치와 디포리 육수 맛있게 내고 있어요. 25년째 한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오늘의 추억

글/그림 2B

경북 영덕군의
여성시대 가족 강지수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저희 부부는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속초 가서
시장 구경도 하고
온천 한번 하고 올까?

그래!
가자!



식당 휴무일인 일요일마다 이곳저곳을
속전속결로 놀러 다니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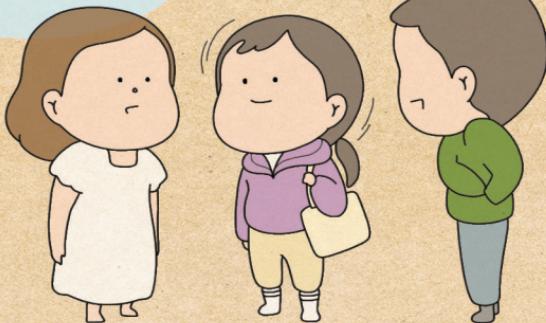
5년 전 초가을 무렵 어느 날의 일입니다.



강릉에 가기로 한 우리 가족은

새벽에 온천 할 거니까
씻지 말고 대충 가자.

그래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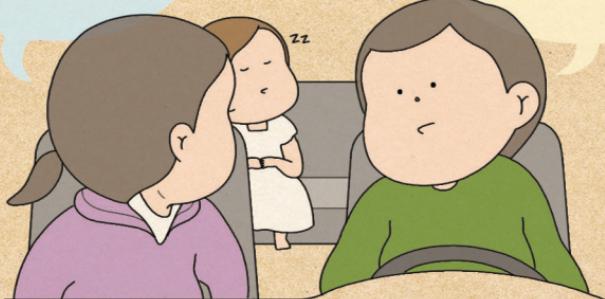


아주 편한 차량으로 강릉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방늦게 출발했으니 휴게소에서 쪽잠을 자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일정이었지요.

엄마 휴게소 왔는데
화장실 안 가?

엄마 자는 것 같으니
우리끼리 다녀오자.



남편과 딸은 제가 잠이 든 사이 화장실을 간 뒷했고



저도 차에서 내려 인적 드문 화장실을 다녀오니
눈을 몇 번이나 비비고 봐도 차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빌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요.

그러다 강사하게도 어떤 분이 휴대폰을 빙려주셨고



드디어 남편과 전화를 할 수 있었다는 웃기고 슬픈 추억입니다.

이후로 어딜 가던지
휴대폰은 나의 신체 일부인 오장 칠부로 여기며
꼭 지니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화성의 거점병원

IBK기업은행 화성발안지점 거래고객
화성중앙종합병원 이상오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화성중앙종합병원은 화성 지역 내 최초의 종합병원이다. 2004년 설립되어 20여 년간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 온 화성중앙종합병원은 지역 거점병원으로써의 역할과 책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화성중앙종합병원은 화성 서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종합병원이다. 신경 외과를 비롯해 정형외과, 내과, 일반 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산업의학과, 영상의학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의 11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다.

2004년 화성중앙종합병원을 설립한 이상오 대표는 당시 화성시 지역에 종합병원이 없어 환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병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2004년에는 화성에 종합병원이

없었어요. 당시 화성 인구가 23만 명 정도밖에 안 되었고 병원 주위에는 3만 명도 안 되는 인구가 살았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당시 근처에서 사고가 나면 지역에 종합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수원으로 이송됐어요. 지금은 화성에 병원이 많이 생겼지만 제가 병원을 개원했을 때 화성의 유일한 종합병원이었기 때문에 화성 지역 거점병원으로써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중앙종합병원은 20여 년간



화성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오랜 세월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지역주민들과의 다양한 에피소드가 많다. 특히 병원 오픈 첫날 외래 환자가 200여 명이 넘었던 것을 잊을 수 없다. 주변에 병원이 없어서 통증이나 고통을 참고만 있던 지역주민들이 몰려든 것이다. 이후 화성중앙종합병원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오가며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어려움도 많았다. 특히 팬데믹이 닥쳤을 때는 항상 위기가 찾아왔다. 몇 년 전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 당시 나라에서 침이 떨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병원 입구에서 검사·소독을 실시하고

자비로 마스크를 나누어주며 감염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히 대응하다 보니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생겼다고 소문이 나서 환자들이 줄어드는 일이 있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많아지면서 코로나 전담 병원이 우후죽순 생겼는데 화성 중앙종합병원은 전담 병원을 하지 않았다. 주변에 큰 병원이 모두 코로나 전담 병원이 되면 일반 환자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당시 국가지원금이 있었지만 전담 병원이 되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다.

병원의 위치가 서울에서 2시간 가까이 떨어져 있다 보니 의료진을 채



용하기도 쉽지 않다.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는 탓에 지방으로 오려는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에도 양질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 오 대표는 원무과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억지로 치료비용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선처하라고 당부한다. 어려운 사람을 돋고 싶은 마음은 의사가 되면서 항상 간직하고 있던 생각이다.

“앞으로 병원을 더 증축하려고 합니다. 응급센터, 척추·관절센터,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등의 전문 센터

및 중증환자실을 확충하고 싶어요. 최근 지역에 좀 더 양질의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싶어서 응급센터를 증축하려고 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조속한 시일 안에 건축 예정입니다. 중증도 있는 환자들을 조금 더 수용할 수 있도록 병원을 확장하여 지역 거점병원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IBK기업은행 화성발안지점 허순옥 지점장은 “화성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지방 도시이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며 “IBK기업은행



과 화성중앙종합병원의 협업으로 현재 향남 2지구 내에 재활치료전문 병원인 향남스마트병원(재활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을 운영중에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IBK기업은행의 협약에 의해 출

시한 의료사업자 전용 대출을 통해
화성중앙종합병원과 서로 도움이 되
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설명
하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화성
의 대표적인 병원으로 점점 더 거래
를 확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화성발안지점 허순옥 지점장(왼쪽)과 화성중앙종합병원 이상오 대표

! 화성중앙종합병원 이상오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지역 거점병원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
2.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실력의 의료진
3.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화성중앙종합병원

대표 이상오
전화 031-35

주 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5

홈페이지 <https://keenus16.cafe24.com/>



기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그린주의’

IBK기업은행 면목동지점 거래고객

(주)그린주의 김현미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그린주의는 MRO 기업으로 시작하여 최근 정보통신 및 전기, 실내 건축 분야까지 사업을 확충하였다. 고객의 니즈에 따라 기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온 그린주의는 사회적기업으로써 기업의 이윤뿐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2006년 설립된 그린주의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를 구매 대행하는 MRO 기업으로 출발했다. 주로 행정소모품, 각종 전산소모품, 오피스용품, 판촉용품, 인쇄물 제작을 한다.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전국에 12개의 지사를 두고 각 지역의 지자체 및 공기업, 민간 기업에게 최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ICT를 기반으로 한 구매 솔루션을 제공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직영 영업사

원과 지사 영업사원 20여 명이 발로 뛰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공사 및 실내 건축공사, 전기공사 면허를 획득하여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의 CCTV 및 방송통신장비 설치하고 각종 실내 건축공사를 맡는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다.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중소기업의 생존 주기가 길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아이템만 고집해서는 어느 순간 사양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김현미 대표의 판단 때문이다.

그린주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비하여 ICT의 기초 뿌리 산업인 정보통신 및 전기, 실내 건축 등 공사 분야와 각종 행사 이벤트까지 사업을 확충하였습니다.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토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주의는 ESG 경영에 발맞추어 2018년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친환경, 녹색제품 전용 B to G 플랫폼 ‘친환경 녹색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회원사만 4천여 개가 넘게 등록되

어 손쉽게 친환경 녹색제품을 구매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친환경 녹색제품의 저변 확대를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 같은 오염물질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일반 소비자까지 이용할 수 있는 B to C 플랫폼 ‘오그린(O’Green)’ 쇼핑몰도 오픈 하였다.

그린주의는 2006년 설립하고 2007년에 제1세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다. ‘더불어 행복한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대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현재 직원의 30%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김현미 대표는 그린주의의 직원 모두가 업무 역량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한다.

“직원들 모두 어떤 업무가 주어졌을 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어요. 장애를 가진 직원들도 마찬가집니다. 각종 세미나와 화상 미팅 등을 통해 끊임없이 교육하고 있기 때문이죠.”

직원들의 업무 역량은 매년 증가

하고 있는 회사 매출을 통해 증명된다. 6명의 직원으로 6,000만 원의 매출을 냈던 창업 초기와 비교하면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이 매출이 증가했다. 2020년 300억 매출을 달성한 이후 매년 100억씩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그린주의는 올해 600억 매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

IBK기업은행 면목동지점 김규숙



지점장은 “그린주의는 여성 CEO가 이끄는 사회적 기업으로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대표님의 경영철학에 감명받았다”고 소개하며 “회사 자금 운용 거래는 물론 직원들의 개인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으며 IBK기업은행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융경제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인연을 소개했다.

그린주의가 앞으로도 기업의 이윤 추구와 사회적 역할이라는 균형을 잘 맞춰나가길 기대한다.



IBK기업은행 면목동지점 김규숙 지점장(왼쪽)과 (주)그린주의 김현미 대표

!(주)그린주의 김현미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트렌드에 발맞춰 사업 아이템을 확장하라.
2. 사회적기업으로써 고용 약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라.
3.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켜라.

(주)그린주의

대 표 김현미
전 화 1544-0725

주 소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23 신내테크노타운 703호
홈페이지 <https://www.greenjui.com/>

코너 속 편지

남성시대

- 81 나에게 가족이란
- 85 자동차 광

- 96 친구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 99 토끼별로 떠난 토동이에게
- 101 민봉이에게
- 103 보고 싶은 친구들에게

주말엔 투유

- 89 취준생 딸에게
- 91 휴가 나올 아들에게
- 94 전화를 받지 않는 당신에게

- 106 아빠는 요리사

일러스트 | 조신애



남성시대

나에게 가족이란

애청자

지난해 나는 승진에서 밀린 것도 모자라 오랜 시간 충성을 다해서 일해 온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 현실을 부정하고 세상을 원망해 보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그렇게 나는 아무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회사를 나오게 됐다. 또래 친구들은 승진을 하고 가게를 확장하며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나이 오십도 되기 전에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버렸다.

퇴사 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가족들은 각자 방에서 제 할 일만 할 뿐 누구도 내게 진심으로 다가오려 하지 않았다. 그저 형식적인 말만 건넬 뿐이었다. 밖에서 생존을 위해 승진을 위해 매달리듯 달려오는 동안 어느새 나는 가족들 사이에서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한때는 죽고 못 살 만큼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아내와의 사이에서 피었던 화사한 꽃들은 이미 시들대로 시들고 난 후였다.

내가 회사 일에 집착하듯 매달리면서 대화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언제부턴가 둘 사이에는 아이들 학업 문제나 생활비 관련 대화만 오갔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서로의 일상이나 감정엔 대체로 무심한 채 지냈다.

아이들 역시 나를 불편하게 생각했다. 나와는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고 어쩌다 함께 집에 있어도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는 법이 없었다. 나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남편으로서 책임을 저버린 적이 없지만 언제부턴가 나만 혼자 외딴섬에 남겨진 것처럼 고립감을 느꼈다.

물론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다. 아내와 아이들이 내 손길이 필요할 때도 나는 어리석게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었다. 나와 가족들 사이에 거리감이 생긴 건 온전히 내 잘못이었다는 걸 잘 알면서도 부유하듯 떠도는 내 모습이 못내 씁쓸했다.

내 나이 사십이 넘어 받아 든 인생의 성적표는 그 옛날 부모님께 혼이 날까 봐 보여드리지 못하고 숨겼던 시험 성적표처럼 초라하기 그지 없었다. 회사 임원으로 승진하면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이 되고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애당초 내 머릿속에서 만 존재한 허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육중한 뱃살 탓인지 걸을 때마다 호흡이 불규칙하고 가슴에서 불쾌한 통증이 느껴졌다.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사회적인 성취에만 매달린 채 몸을 돌보지 못한 결과는 참혹했다. 나는 곧바로 대학병원에 입원해 수술받았다. 직장을 잊고 건강을 잊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주변인이 되고 보니 '중년'이라는 나이가 거대한 물음표로 다가왔다. 모든 게 뒤틀어졌다.

아내는 입원 기간 거동이 불편한 나를 위해 정성껏 간병을 해주었지

만 치료에 관한 얘기 말고는 늘 그렇듯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아픈 나를 위해 자주 찾아와 주었지만 항상 어색함이 감돌았다. 몸과 마찬가지로 사람 사이의 감정도 제때 살피지 못하면 어긋나버리고 마는 것 같았다.

가슴을 여는 대수술은 내 숨통을 트워주었지만 대신 걷는 것조차 버겁게 만들었다. 막상 퇴원하고 보니 직장에 대한 고민은 사치로 느껴질 만큼 예후가 좋지 않았다. 이제라도 몸도 관계도 일도 다시 원점에서 하나씩 살펴 삶을 재정비하고 싶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는 혈관 건강을 위해서 생활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며 침대에 누워 있는 나를 채근해 집 근처 숲으로 이끌었다. 내 등을 떠미는 아내의 손끝에서 강한 연대감이 느껴져 모처럼 마음이 든든했다. 고작 30분간의 산책에 몸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머리는 꽤 맑아지는 것 같았다.

“사람이 왜 그렇게 고지식해. 회사 관뒀다고 인생이 끝나니? 모아놓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도 보내고 운동도 하면서 여유 있게 살면 좋잖아. 갑자기 중병에 걸려 유서인지 반성문인지도 모를 이상한 편지를 남겨서… 애들이나 나나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무심히 톡 건넨 아내의 말 한마디가 온통 흑백이던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다가갔다. 다시 한번 가족들 사이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진심으로 부탁했다. 내 손을 뿌리치지 않고 잡아준 아내는 내가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처음엔 공통의 관심사가 없어 서먹하고 어색했다. 이를 눈치챈 아내가 딸아이가 좋아하는 아이들과 아들 녀석이 좋아하는 게임을 귀

띔해 주었다. 아내가 외출하고 아이들과 나만 집에 남았을 때, 나는 아들 방으로 들어가 아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함께하고, 딸아이와 함께 아이돌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그렇게 나는 조금씩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갔다. 그러자 아이들은 하루 종일 집에 혼자 누워 있는 나를 생각해 간식을 사 오고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려 노력해 주었다.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된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다. 집 주변의 공원에서 시작된 산책은 숲으로 바다로 산으로 내륙으로 그 지역을 점점 더 확장시켜갔다.

가족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며 함께 웃고 행복하게 지내는 사이, 만신창이 같았던 몸이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갔다. 불규칙하던 호흡은 안정을 되찾았고 가슴 통증도 사라졌다. 육중한 뱃살도 줄어들고 다리에는 잔근육이 생겨 더 이상 걷는 게 부담되지 않았다. 얼마 전에는 새로운 직장에도 취업해 위축되었던 어깨를 당당히 펼 수 있게 되었다.

그간 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조금 더 넉넉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은 욕심에 아등바등했을 뿐 정작 가족과의 관계나 내 몸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았다. 앞만 보고 달려오는 과정에서 가족들과 메울 수 없는 틈이 벌어지고 말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짙은 안개 속에서 헤매던 나는 내가 딛고 있던 발밑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제 길을 찾게 됐다. 주위를 둘러보니 마지막까지 나를 지탱해 주고 있었던 건 결국 가족이었다. 가족들이 내가 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곁을 지켜준 것이다. 앞으로 남은 삶은 능력 있는 남편이나 아버지가 되기 위해 발버둥 치는 대신 자상한 남편, 친근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가슴을 열고 가족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남성시대

자동차 광

애청자

자동차에 대한 나의 지독한 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른다. 그저 움직이는 것이 좋아 관심을 가진 시절이 있었음은 분명한데 성장해서도 그 관심이 줄지 않았고 오히려 관심이 집착으로 변질되어 하루라도 그 관심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용돈을 아껴 자동차 월간지를 사 모았다. 매 월 초에 나오는 자동차 월간지에 실릴 내용이 궁금해 월말마다 새로 운 연인을 만나는 사람처럼 가슴이 콩닥거렸고 비로소 새 월간지를 사 가지고 집에 오면 밥도 먹지 않은 채 단 몇 시간 만에 다 읽으며 한 달 기다린 보상을 받고 그 흥분을 가라앉히는 과정을 반복했다.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우리 반에 나랑 똑같이 자동차 병에 걸린 친구가 있었다. 그 애와 새로 나온 차에 대해 서로 아는 지식을 떠벌리며 경쟁 아닌 경쟁을 펼쳤으니 지기 싫어했던

나의 고집이 이 사태에 이르도록 했을 것이다.

마력, 토크, 엔진 형식, 회사, 특징, 새로운 옵션, 디자인 등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검색하면 알 수 있는 정보를 그때는 어떻게든 머릿속에 넣고 내 관심이 경쟁자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려야 직성이 풀렸다.

하루는 등굣길에 이웃 아저씨가 새로 산 자동차를 발견하고 그 자동차를 구경하느라 학교에 늦었다. 그 대가로 내 엉덩이는 담임선생님 한테 불질을 당했다. 그러면서도 잡지에서나 보던 새 차를 내 눈으로 직접 봤다는 만족감과 내일도 그 차를 살펴볼 수 있다는 안도감에 기분이 좋기만 했다.

시간이 흘러 경쟁자인 친구는 운명의 장난처럼 모 대학 기계공학과로 진학해 지금은 자동차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나는 교사의 길을 택했다. 물론 이 길은 내가 택한 길이 아닌 부모님의 요청에 의한 길이다. 부모님은 가정 형편을 설명하며 학비가 싼 사범대학에 진학하라 권했고 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요즘도 부모님 앞에서 눈물짓던 그때의 내 모습이 생각나지만 이제는 ‘그때 내가 원하는 길로 갔다 해도 내가 지금의 그 친구처럼 잘하고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어’라고 위안 삼고 그때의 눈물을 지우려 한다.

대신 함께 출퇴근하는 선생님들과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꽂피울 때, 혼자 흥분하고 인터넷 세상에서 새로운 자동차 얘깃거리를 찾아 어슬렁거린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즐겨찾기에는 자동차 관련 사이트 가 즐비하고 주말이면 내 차를 시험 삼아 뜯어보고 부품 교체하고 몇 번의 도전 끝에 모 자동차의 베타 드라이버로 지원해 차를 평가하고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 자동차 관련 기사와 자동차에 대한 다른 사람들 글을 읽으며 공

감하기도 하고 반론도 펼치고 자동차 동호회 모임에도 참석하고 전국의 모터쇼 전시장엔 빠짐없이 찾아다녔다. 해외여행에서는 가족사진 보다 그 나라 자동차 사진이 더 많고 가끔 수업 시간에도 자동차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쏟아내며 그 열정을 이어가고 있다.

어린 시절에는 ‘미적분은 왜 해야 하며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며 의문을 품었지만 자동차 엔진의 효율성을 다룬 논문을 보며 모든 물리학과 역학의 중심에는 기본으로 미적분학 이론이 존재함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어 수학 교사로서 자부심도 갖게 되었다.

또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성장해 자동차 산업의 역군으로 일하고 있어 그들의 진로에 내가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쳤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보상받는 기분도 들어 잠 못 이룬 적도 있다.

이런 나의 생활에 몇 번의 위기가 찾아왔다. 몇 년 전 우리 가족은 이사했는데 하필이면 수학여행 기간 중이었다. 아내도 나의 관심 분야를 이해하기에 10여 년 모았던 월간지며 자동차 관련 서적들을 가져가 책장에 그대로 꽂아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후 나는 충격받았다. 책은 최대한 처분했고 좁은 집에 책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니 이해해 달라는 아내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 나는 전에 살던 아파트 쓰레기장으로 달려갔다. ‘제발 가져가지 않기를!’ 하고 기도하며 찾길 수차례 하지만 어디에서도 책의 흔적은 찾을 길이 없었다. 내 추억과 관심사, 기록이 모두 사라진 것 같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가 서운해서 한동안 냉전기를 보냈다. 이사 날짜 정하는 것도 나의 집착을 끊기 위한 아내의 계획이었고 취미 말고 가정에 더 충실히 하라고 별인 일이라는 실토는 나중에 들었다. 그땐 원망스럽기만 했지만 이제 조금씩 집착에서 벗어나 보려 한다.

돌아보니 매사에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이며 내

위치와 내 역할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 순리였다. 내가 살피지 못한 사이에 내 아이들도 너무 많이 커 버렸다. 자동차에 치우친 90%의 집착과 중독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아직도 60%쯤에 머물고 있는데 더 벗어나야 한다고 마음먹고 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정신 차려보니 언제 그렇게 사 모았는지 내 방에는 자동차용 스파너, 드라이버, 롱노우즈, 바이스 플라이어, 토크렌치 등의 수리 공구와 고압세척기, 세차용 샴푸, 미트, 광택용, 광택기, 각종 왁스 등의 세차 도구가 책꽂이마다 책을 대신해 정렬했고, 차 트렁크에도 디테일링 도구가 한가득이다. 이 왁스 저 왁스를 발라가며 비 올 때 자동차 표면에 내린 물방울이 어떤 형태로 맷하고 반응하는지 어떤 형태로 흘러내리는지 살피며 왁스별로 평가서를 써보기도 하고 새 장비가 나왔는지 웹사이트를 어슬렁거리며 자기만족을 찾으려 하고 차 관리 상태를 보고 차주를 평가하고 성향을 추측하려 듈다.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이런 집착 하지 않아! 그들에겐 차가 일상의 수단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를 외치면서도 자꾸 눈이 간다. 한 평 남짓 되는 작은 공간에서 시동을 거는 순간, 그 공간은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나만의 공간이 되고 하루를 계획하거나 반성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라디오를 통해 들려오는 세상살이가 있고 아는 노래가 나오면 머리를 흔들며 감동하기도 하고 창을 통해 자연의 신비를 선물 받고 만나고 싶은 사람과 빨리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내가 원하는 곳으로 언제 어디든 데려다주는 나의 친구. 난 언제쯤이면 이 짹사랑의 중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내는 오늘도 나에게 말한다.

“자동차와 결혼하지! 왜 나랑 했어?”

주말엔 투유

취준생 딸에게

송민정 | 부산광역시

안녕, 우리 딸!

스물아홉 살에 취준생이 되어 서울에 면접을 보러간 내 딸아! 네가 하고 싶은 그 일은 엄마에게도 엄청난 염원이란다. 너에게 부담이 될까 봐 티 내지 않은 것뿐이야. 안 그래도 지금까지 취업하지 못한 너 자신에게 화가 나 있을 텐데 거기에 나의 기대감까지 보탠다면 그 중 압감이 얼마나 클지 싶어. 혹여 무관심처럼 보이는 모습에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엄마인 나로서는 그게 최선이었다.

더군다나 이미 취직하여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난 친구들과 달리 매번 용돈을 타 써야 하는 처지가 얼마나 한탄스럽고 면목 없겠어. 그래서 그랬는지 이번에 네가 서울 올라갈 때 숙박과 열차 편을 내 카드로 예매했는데 결제 금액이 생각보다 싸게 나온 거야. 알고 보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궁화 열차를 탔더라. 안 그래도 오전 면접이라 전

날 올라가서 숙박하고 면접 본 다음 오후 두 시 열차를 탔다고 했는데 밤늦게 도착한 게 이상했지. 그런데 빠르게 갈 수 있는 KTX 말고 6시간 걸리는 무궁화호 열차를 탔을 줄이야. 거기에 숙소는 케스트하우스를 잡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네 딴엔 한 푼이라도 아껴서 엄마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겠지만 자식이 고생하기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니. 너에게 왜 그랬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냥 모른 척했어. 나의 안쓰러움이 딸에게 전달되어 마음 아파할까 봐.

작년 이맘때쯤이었지 그때도 넌 같은 곳에 지원했었는데 면접에서 탈락하고 말았지. 기대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야. 그때 마침 지원자 중 한 명이 면접을 보러 오지 않았다는 말에 희망이 보태져서 발표일만을 손꼽아 기다렸지.

그런데 네가 갑자기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고 며칠간 집을 비웠잖아. 다시 생각해 보면 불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우리를 마주하기 힘들었던 거야. 무엇이 미안해서 그랬을까. 혹시나 은연중에 우리가 너에게 압박을 줬거나 남을 빗대가며 조급하게 만든 건 아닐지 미안했다.

그러니 이번 면접 결과 발표 날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단다. 엄마가 한 말 기억하지? 어떠한 결과도 엄마 아빠에게 미안할 일이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작은 실패들을 거쳐 더 크게 성공할 거라고 그러니 전혀 기죽을 일이 아니라고 필기시험에 번번이 합격하는 것만도 대단한 일이라고 이번이 아니어도 너를 필요로 하는 곳은 널려 있으니 조급하게 생각 말라고 말이야.

너의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짧을 때인지 알겠지. 딸아,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자! 엄마는 언제나 널 응원해! 사랑한다~!

주말엔 투유

휴가 나올 아들에게

김순이 | 경남 김해시

아침에 네 동생을 차로 등교시키고 수변을 걷다가 네 생각이 나서 '아들~' 하고 불러보는데 가슴이 아린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길을 너와 함께 걸었는데 말이야.

21년 전 널 임신했단 소식을 들었을 땐 기쁨도 잠시 근종이 커서 조심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 말에 집에 와서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난다. 임신 5개월 차엔 진통 때문에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지. 그렇게 고비를 넘기고 나서 넌 3.8kg으로 세상에 태어났어. 지금도 엄마 귀에는 너의 울음소리가 생생하단다. “응애~~” 조용하고 적막한 밤 중 수술실에 울려 퍼진 너의 우렁찬 목소리.

애교도 많고 살갑고 다정한 성격의 아들은 사춘기를 넘기면서 조금씩 말수도 줄고 친구들과 게임하기만 좋아했지. 공부도 곧잘 했던 네가 변하니까 엄마 아빠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 너 역시



대화가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돌았지. 그 상태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어. 고1 때 첫 중간고사를 치고 나서 성적이 너무 좋지 않자 넌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했고 몇 달 후엔 학교도 다니기 싫다고 했어. 그리고 몇 번의 다툼 끝에 넌 집을 나가버렸지.

사실 그날 밤 엄마는 밤새 베갯잇이 다 젖도록 눈물을 흘렸어. 뭐가 문제일까? 그땐 어떻게 해야할 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다행히 며칠

뒤 낸 집으로 다시 돌아와 주었고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어.
고등학교 졸업식 날, 엄마가 했던 말 기억하니?

“아들아! 너 학교 다니기 싫다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나 졸업이다. 공부는 안 해도 되니까 졸업만 하자고 했었는데….”

그러자 낸 멋쩍은 듯 웃으며 “에이~ 엄마 그게 언제 일인데….”라고
대답했지. 그래 그땐 정말 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힘들었는데
다 지나고 나니 웃으며 말할 수 있더라.

그런 네가 4월에 입대를 했다. 입영식 날 울고 있는 엄마를 안아준
뒤 “갔다 올게!” 한마디 던지고 뒤돌아 걸어가던 네 모습이 계속 생각
나서 며칠을 울었다. 세상의 신이란 신들을 다 찾으며 부탁도 많이 했
어. 네가 아무 탈 없이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모든 아들들이 다 그렇겠지만 잘 지내고 있다니 고맙고 대견하고 네
가 자랑스럽다. 떨어져 있는 사이에 부쩍 어른스러워져서 힘들게 일
하는 아빠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아빠랑 소주도 한 잔 마시고 월급
모아서 아빠 휴대폰 사주는 멋진 아들이 되었네.

그렇게 간간이 네 소식을 들었어. 지난 8월엔 네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 마음이 아
팠다. 뉴스에서는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니 걱정이 되는구나. 왜들
그래야 하는지 정말… 따뜻한 곳에서 살다가 쌀쌀한 강원도에서 지
낼 네가 걱정도 된다. 여기선 눈 보기가 정말 귀한데 올 아들, 올 겨울
엔 눈을 지겹도록 보겠다.

강원도 인제군에서 복무 중인 아들아! 엄마는 전화기 너머로 잘 지
내고 있단 너의 말에 위안과 행복을 느낀다. 잘 지내고 있다니 안심하
면서 그리운 마음 담아 편지해볼게. 곧 휴가 나올 우리 아들~ 사랑해!
그때 보자.

주말엔 투유

전화를 받지 않는 당신에게

노한형 | 전북 전주시

어머니! 잘 계시지요?

어머니의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아들 모두 어머니 품으로 간다고 떠났는데 잘 만나셨지요? 심성이 고운 형님들이니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하고 서로 잘들 지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던 큰며느리도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막내아들인 저는 이제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재직 중에 성실한 자세로 일을 잘하였다 하여 대통령 훈장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보셨더라면 여기저기 자랑하며 기뻐하셨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제가 건강이 조금 좋지 않네요. 가슴이 좀 아파서 엊그제 병원에 갔더니 '관상동맥 석회화'라는 증상이 발견되어 다음 주에 입원하여 시술하기로 했습니다.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 하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에는 제가 할아버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예뻐하시던 제 딸아이가 결혼했는데 아기를 가졌다니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임신초기 입덧이 심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 하여 지 엄마가 열무김치, 고구마순 김치 등 몇 가지 반찬을 만들어 보냈더니 그거 먹고 입맛을 찾았다고 합니다. 산모도 태아도 모두 건강하기를 빌어주셔요.

그리고 어머니, 온갖 희로애락이 서려 있는 고향 집은 제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이 너무 낡아서 조금 개조했어요. 거기에 사람이 살지는 않지만 제가 수시로 다니면서 쓸고 닦고 꽃도 심고 깨끗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 어른들께서 사람 사는 집보다 더 관리를 잘한다고 칭찬하신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이라면서 말입니다. 앞마당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봉숭아, 맨드라미, 접시꽃을 심어놨고, 아울러 고추랑 고구마, 콩 등 농작물도 심어서 예쁘게 가꾸고 있습니다. 뒷뜰에는 어머니께서 심어 놓으셨던 부추가 아직도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거 생명력이 대단하더라고요. 부추반찬이 밥상에 오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집 밥상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생전에는 넉넉지 못한 살림이라 배고픈 세월 사셨는데 거기서는 배곯지 않으시고 풍족하시지요? 걸게 차린 성찬에 귀한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하신 가운데 호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추신] 어머니는 19년 전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저는 기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제 휴대폰에 저장된 어머니 전화번호를 누르곤 합니다. 그러고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지요. 어머니는 언제 어느 때든 제 얘기를 가감 없이 다 들어주시거든요.

주말엔 투유

친구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최금선 | 경기도 파주시

내 친구 오순아!

3년 전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창밖에서 너희를 보았지. 아파트 연못에서 어미 오리와 아기 오리 2마리가 평화로이 헤엄치는데 어찌나 귀엽던지. 너희가 어떤 오리인가 인터넷에 찾아봤어. 흰뺨 검둥 오리처럼 생겨서 그런 줄 알고 너희 이름을 '오순이'라 지었지.

이후로 너희는 입소문이 나면서 우리 아파트의 명물이 되었어. 초등 학생 왕자님들은 학교를 마치고 달려와서 지렁이도 잡아 주고 연못에 녹조가 끼면 청소도 해 주면서 너희를 자극 정성으로 키웠어. 사실 우리 아파트 연못은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무척 위험한 환경이지. 그래도 착한 왕자님들 덕분에 너희가 예쁘게 자란 것 같아서 다행이야.

그런데 어느 날, 아무리 기다려도 너희 가족이 보이질 않아서 창밖

으로 계속 연못을 내다보았어. 오후 2시쯤 엄마 오리는 보이지 않고 너희 둘만 힘없이 물에 떠 있더라. 내려가서 무슨 일인지 살펴보는데 동네 분들이 너희 엄마가 야옹이한테 잡혀서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더라. 너희 엄마는 날 수 있는데도 아직 새끼인 너희들만 두고 갈 수가 없었는지 계속 바라보다가 야옹이한테 잡혀갔대.

그리고 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희가 오리가 아니라 원앙이라는 거야. 내가 알던 원앙은 화려하고 귀티나 보였거든. 믿을 수 없어서 또 검색해 보았지. 정말 너희 원앙이 맞더라.

시간이 지나니 너희도 점점 어른의 모습을 갖추어 갔지. 제법 날갯짓도 할 수 있게 되자 연못을 떠나 다른 원앙 무리에서 놀다가 저녁에 잠깐 돌아와서 얼굴만 보여 주고 가더라. 나는 속으로 너희가 남친을 한 번쯤 데려오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로 연못을 떠나기 전날, 멋진 남친을 데리고 왔지. 그리고 그날 이후로 너희를 볼 수 없었어. 나는 너희가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서 그곳에 정착해서 잘살기를 바랐단다.

그런데 작년 6월 어느 날, 너희가 7마리 새끼 원앙과 남편을 데리고 왔더라. 남편은 너희들이 정착하는 것을 보고 바로 떠나고 너희도 잠깐 새끼들을 돌보더니 어디론가 떠났어. 아주 가끔 새끼 원앙들을 살피러 왔지. 너희 엄마는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옆에서 너희를 지켜 주었는데. 대신 우리가 연못에 집도 지어주고 야기들이 놀 수 있도록 나무도 물에 띄워 주었어. 그런데도 새끼 원앙들은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하나둘씩 할머니가 계신 하늘나라로 떠나고 한 마리만 남았어.

그 녀석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이름을 ‘똑순이’라고 지어주었지. 왜 똑순이인 줄 알아? 내가 새끼들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연못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라면서 다리를 개구리처럼 쭉 뻗고 죽은 척 하더라고. 그뿐이 아니야. 똑순이 배고플까 봐 청경채를 나무 위에 올려놓았

는데 먹다가 물에 빠지자 그것을 다시 주워 먹더니 목에 넘어가는 게 부드러웠는지 그다음부터는 계속 물에 적셔서 먹더라. 그 모습이 얼마나 장하던지.

똑순이는 왕자님들과 거리도 두지 않고 반려동물처럼 옆에서 함께 놀았어. “똑순아, 운동하자” 하면 우리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도 하고 물속에서 조금씩 날아오르는 연습도 했지.

그런데 위기는 또 찾아왔어. 다른 주민이 똑순이의 보금자리를 치우라고 항의한 거야. 우리는 똑순이가 날아갈 동안만 봐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렇게 며칠이 지나 똑순이는 날아서 연못 물에 올라왔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똑순이도 할머니가 계신 하늘나라로 갔어.

왕자님들은 작별 편지도 쓰며 똑순이를 추모해 주었지. 한 왕자님은 진심으로 똑순이를 사랑했는데 어른들은 왜 우리의 진심을 보지 않느냐면서 항의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랬어. 아파트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원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 관리사무소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 주었지.

그렇게 똑순이가 떠나고 1년이 지나고 다시 올해 너희가 새끼 원앙들을 데리고 우리 아파트에 온 거야. 너희들 때문인지 관리사무소에서 비가 오면 연못에 물을 빼버려서 이제 연못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데 말이야. 하는 수 없이 내가 동 대표님과 기계실 직원을 찾아가 너희를 다른 곳으로 보낼 테니까 그때까지만 물을 조금만 넣어달라고 사정 했는데 그분들도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는지 외면하더라. 그렇게 너를 떠나보내고 너희 아이들도 모두 하늘나라로 갔단다.

그러니 오순아!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 너를 지켜줄 힘이 내게는 없단다. 다른 환경 좋은 곳에서 잘 살아가길 바랄게.

주말엔 투유

토끼별로 떠난 토동이에게

노미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녕? 토동아. 엄마는 네가 무척이나 그립구나. 너와 처음 만난 날은 2018년 10월 가을이었어. 서울 몽마르뜨공원 유기 토끼 중 한 마리였던 네가 어떻게 머나먼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알고 있니? 엄마 아빠는 반려토끼 토닥이 누나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인터넷 카페에서 네 소식을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단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철장 안에서 밥을 먹는 네 사진을 보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너를 입양하기로 결심했단다. 그렇게 넌 우리 가족이 되었어.

몸무게가 500g 채 되지 않고 한 손바닥 안에 들어오던 네가 포동포동 살도 찌고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토동이란 이름을 지어줬지. 처음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토닥이 누나를 보고 무서워하더니만 점점 우리 집에 적응해서 네가 애교를 부리던 게 생각이 나네. 머리를 쓰다듬어 주라며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던 네 모

습, 건초와 당근 간식에 행복해하며 헤드뱅잉 하며 점프하던 모습. 동물병원에 검진 갔을 때 무서워서 아빠 품으로 쑥 숨던 모습, 5초 만에 잠들기 묘기를 보여주며 눈을 반쯤 뜨고 발라당 누워서 잠들던 네 모습까지…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구나.

그런 네가 갑자기 좋아하던 밥도 먹지 않고 웅크리고 있기에 환절기에 가끔 겪는 장정체인 줄 알았는데 그게 너와의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 그때 아빠랑 엄마가 배 마사지도 해줬지. 그런데도 네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계속 설사와 혈변을 보여서 다음날 일찍 병원에 가기로 하고 우린 널 품에 안고 잠들었지. 지금 생각해 보면 너는 밤새 아픔을 꾹 참고 엄마 아빠를 기다려 주었던 것 같아. 일어나서 네 상태를 확인하니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귀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채로 축 늘어져 있었어.

그때 네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많이 아팠는데 우리랑 마지막 인사 하려고 참고 기다린 거였니? 넌 우리 손길에 대답이라도 하듯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옆으로 퍽 쓰러졌다. 그렇게 넌 10월 15일 아침에 토끼 별로 떠났어.

하루 전만 해도 건강했던 너였기에 네가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단다. 너와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 널 보내주고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보았어.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데 토동이 너를 닮았더라. 마치 “엄마 아빠, 나 토끼별에서 잘 뛰어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요”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단다. 그렇게 토동이 너는 끝까지 우릴 안심시켜 주고 떠나갔어.

토동아, 너랑 함께한 5년 동안 정말 행복했단다. 그곳에선 살찌도 좋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뛰어놀고 잘 지내야 해. 나중에 엄마 아빠랑 다시 만나자. 사랑해 토동아.

주말엔 투유

민봉이에게

조영애 | 전남 영광군 영광읍

민봉(민트색 봉봉이)아 안녕?

너에게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는데 너를 돌아볼 여력이 없어서 지금에서야 이렇게 편지를 쓴다.

너와 만난 지 어느덧 3개월이 되었구나. 널 처음 만나고 2달 동안은 항상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남편 이렇게 셋이 붙어 다녔지. 온전히 너와 나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된 건 이제 한 달쯤 되었겠구나.

내가 이렇게 너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야. 그동안 모자란 주인을 만나서 시끄럽게 빵빵 거리는 다른 차들의 경적도 견뎌야 했겠고 주차할 때도 너를 잘 다루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을 감내해야 했겠지. 너의 성격을 알 순 없지만 얼마나 창피하고 한숨이 나왔겠니. 운전 잘하는 주인을 만났더라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참 미안하구나. 내가



운전에 적응할 때까지 조금만 견뎌줘.

내 인생에서 운전이란 건 결코 생각지 못한 일인데 지방으로 내려온 운전을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나도 너를 만나기로 결심한 거야. 운전 면허에 도전하면서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참 많았어. 특히 남편에게 운전 연수를 받을 때 남편의 지적을 참지 못하고 싸울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도 화를 꾹꾹 참고 너와 내가 만날 수 있었지. 처음에 널 만났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 아~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손이 바들바들 떨린다.

민봉아~ 널 데리고 아직 동네 몇 군데 밖에 못 가지만 점점 나아지겠지? 그렇다고 말해줘! 내게 힘을 주렴. 앞으로 몇십 번 아니 몇백 번의 빵빵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참고 나와 오래오래 함께 해 줄래? 부탁할게~. 못난 주인이 민봉이 널 많이 사랑한다~. 함께해 줘 진짜!

주말엔 투유

보고 싶은 친구들에게

김소용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혜영아, 춘화야, 현숙아 안녕!

오랜만에 너희 이름을 다 불러보는구나.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고 하던데 35년이 지난 지금 너희 얼굴은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다.

전학을 다섯 번이나 다녔던 학창 시절, 내 기억에 남아 있는 친구들은 너희뿐이야. 너희와 함께한 추억은 지금도 기억난다. 35년 전 가족들과 경기도 원당으로 이사 갔던 그날, 낯선 곳에서 적응하기 힘들어했던 나에게 너희가 먼저 손 내밀어 주었지.

같은 반 친구였던 혜영이와 현숙이 너희들과 가장 먼저 친해졌던 걸로 기억해. 내가 전학 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춘화가 목포에서 전학 오면서 우리 넷은 단짝이 되었어. 원당초등학교 4학년 2반 교실에서 너희를 만나서 참 행복했는데….

5학년이 되면서 혜영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지. 그때



나의 쓸쓸함을 눈치챘는지 너의 빈자리를 춘화와 현숙이가 잘 채워주었단다. 춘화와 현숙이 덕분에 같은 반 친구들과도 금세 친해질 수 있었어.

담임이었던 선생님께 '콩나물 깨주부'란 별명을 붙이고, 장난을 좋아했던 종민이, 4학년 때부터 같은 반 친구였던 지현이, 연경이, 혁준

이, 진영이, 나와 짹꿍이었던 현래, 준섭이 그리고 나와 이름이 비슷하던 소영이. 더 많은 친구가 있는데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때 너희를 만나면서 친구의 정이라는 걸 처음 느꼈어.

그런데 5학년 겨울, 김천에 계시던 친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내 옷과 짐 가방을 챙겨 나를 김천으로 보냈어. 그 길이 전학 가는 길인 줄 알았다면 난 가지 않겠다고 했을 텐데 말이야.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얼떨결에 김천으로 전학 가던 그날 너희들과 헤어짐이 아쉬워서 눈물을 흘렸지. 너희는 언제나처럼 나를 달래줬어. 울지 말라고 할머니 말씀 잘 듣고 건강히 지내라고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 말이야.

마지막까지 교실 창문 너머로 “소용아, 안녕~ 잘 가~” 소리쳐 인사해 주던 원당초등학교 친구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내 귓가에 맴도는 듯해.

그때 너희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하고 마냥 울기만 했던 내 어린 날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다른 사람들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혜영이, 현숙이, 춘화 너희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너무 컸어.

혜영아, 현숙아, 춘화야!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내고 있니? 나 너희들과 헤어지고 나서 습관이 하나 생겼어. 나보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는 습관. 그거 너희에게 배운 거야.

내가 너희를 기억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35년 전 원당초등학교 친구 중에 나도 있었다는 거, 김소용이란 친구를 기억해 줄래?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벌써 35년 전이네. 다시 너희를 만난다면 그때 너희에게 받기만 했던 것들을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싶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든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

한 해가 다 지날 때쯤이면 너희가 유난히도 그리워진다. 내 친구 혜영아, 춘화야, 현숙아 너희가 내 친구라서 좋았어. 고맙고 미안하다.



아빠는 요리사!

◎ 여성시대 가족이 보내주신 요리법입니다

쪽파 크림치즈 토스트

[재료] 식빵, 버터, 쪽파, 꿀, 크림치즈

- 식빵을 버터에 노릇노릇 빠삭하게 구워주세요
- 크림치즈에 2mm 크기로 송송송 썬 쪽파와 꿀을 넣고 버무려 줍니다.
- 구운 식빵에 쪽파, 꿀을 넣고 만든 크림치즈를 치덕치덕 발라주세요.

우리 딸이 파를 안 먹는데 이 쪽파 크림치즈 토스트는 말리지 않으면 5장 까지도 먹더군요. 딸에게 인기 얻고 싶은 전국의 아빠분들, 쪽파 토스트 정말 쉽습니다.

대파 샐러드

[재료] 대파, 올리브유, 베이컨, 치즈, 달걀

- 길게 썬 대파를 프라이팬에 올려 구워주세요.
- 베이컨은 구워서 잘게 다져주세요.
- 달걀은 삶아주세요.
- 구운 대파를 접시에 놓고 치즈 잘게 썰어 올리고 다진 베이컨 올리고 삶은 달걀도 으깨서 올려주세요. 그 위에 올리브유 뿌려주시면 됩니다.
구운 파가 얼마나 단지 몰라요. 파 아닌 줄 알아요. 두 번째 할 때는 아예 올리브유에 파를 굽고, 마찬가지로 장식해도 굿!

비지 스테이크

- 비지에 양파랑 야채 다져 넣고 부침가루 적당히 넣어 동글동글 만들어 달걀물 입혀 부치면 끝!

비지는 찌개보다 요렇게 만들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 두붓집에서 두부 사면서 비지 두 봉지 가져와서 비지 스테이크 만들어 놓으면 게 눈 감추듯 순삭입니다.

참치 스테이크

[재료] 참치통조림 1개, 부침가루, 양파 1/2개, 당근 약간, 소금 약간, 달걀

- 양파와 당근을 잘게 다져주세요.
- 기름 뺀 참치와 달걀, 야채, 소금을 넣고 섞어준 후 부침가루를 넣어가며 되직하게 해준 후, 한 덩이씩 잡고 손으로 쳐주면서 스테이크 모양을 만

들어 주세요.

- 기름을 두른 팬에 구워 준 후, 스테이크 소스를 뿌려서 드셔보세요.

두부 스테이크

[재료] 두부, 각종 채소, 부침가루

- 두부는 물기 빼서 으깨세요. 채소는 다지세요. 이때 파와 마늘도 같이 넣어주세요.
- 으깬 두부에 채소 다진 것, 부침가루 넣고 치대세요.
- 둥글넓적하게 스테이크 모양으로 빚어서 기름 두른 팬에 구우세요.
- 돈가스 소스나 스테이크 소스 뿌려서 드세요.

어묵 가스

[재료] 어묵, 달걀, 빵가루, 밀가루, 식용유

- 납작 어묵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기름기 빼주고 키친타월로 물기도 빼줍니다.
- 밀가루 살짝 묻히고 달걀물을 입혀주세요.
- 그 위에 빵가루 한 번 더 묻혀 튀기면 끝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돈가스·생선가스보다 어묵 가스가 훨씬 맛있대요.

새우버거 맛이 나는 어묵 토스트

애들이 새우버거 사 달라고 할 때 만들어 주세요. 신상 새우버거라고 하면 깜빡 속을 수도 있고 더 맛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일단 양파를 썰어서 물에 담가 매운맛을 빼주세요.
- 단무지를 잘게 썰어주고, 납작 어묵을 구워주세요.
- 식빵을 토스터에 구운 후, 어묵, 양파, 단무지를 넣고 마요네즈를 뿌려서 식빵을 덮어주세요.

골뱅이 튀김

골뱅이는 생김새 때문에 안 먹는 아이들,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방법으로 만들면 아이는 물론 온 가족이 좋아하는 간식을 만들 수 있어요.

- 튀김가루에 찬물을 넣고 약간은 묽게 튀김반죽을 만들고 여기에 쪽파를 송송 썰어 넣어 주세요. 맛도 좋아지고 색깔도 예뻐서 좋아요.
- 골뱅이는 잘게 다져서 밀가루를 살짝 넣고 볼처럼 만들어 주고 잘 달궈진 기름에 풍당 튀겨줍니다.
- 찬물에 넣어 매운 맛을 뺀 다진 양파 조금, 마요네즈 2숟갈, 설탕 조금, 레몬즙 조금 넣어 소스를 만들면 부드러우면서도 상큼한 타르타르 소스가 됩니다.
- 골뱅이 튀김은 짭조름하고 씹는 맛도 있으면서 소스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소통이 반갑다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언제부턴가 트로트가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의 심금을 울리더니 급기야 그 가수들의 콘서트 표를 구해 드리는 게 큰 효도라는 말까지 나왔다. 게다가 자식들보다 좀 더 어린 조카들에게 부탁하거나 아니면 가장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광클(빛의 속도로 클릭하여 티켓을 사는 것)으로 표 구입을 잘해서 초등학생들이야 말로 효손 중의 효손이라고 한다.

내 친구들은 주변에 광클해 줄 초등학생이 없어서 서울 공연 대신 부산 공연을 매표하고 모처럼 가는 여행에 들떠 난리 떨다가 부산의 국제시장, 깡통시장, 먹자골목을 둘러보고 공연장에 갔는데 제지를 당했단다. 따져 물으니 친구들이 구한 표가 어젯밤 티켓이었다는 사실! 너무 흥분해서 날짜도 확인 못 하고 하루 지나 출발했던 것인데, 큰소리로 억울함을 얘기하다가 덕후들 팬클럽 회장 귀에도 들어가 사정을 알아준 덕에 공연을 보고 부산에서 1박하고 귀가했단다. 참 그 나이에도 가수를 향한 열정과 응원이 대단했다.

이상하게 꽤 오래전 유행했던 맥반석 요와 온갖 건강식품 판매 붐이 떠올랐다.

영업사원들은 외롭게 나이 들어가는 어르신들 마음속에 들어가 자식처럼 곰살궂게 안부를 물어오고 살갑게 얘기 동무해 드린다. 놀러 오시면 휴지, 비누, 냄비 등 자잘한 생활용품들을 펴주다가 어느 날 비로소 장사 보따리를 푸는 것이다. 어르신들은 그동안 받아온 물건들이 부담스러운 나머지 ‘그래 허리, 무릎에 그렇게 좋고 한참 쓰다 보면 감쪽같이 나았다는데 이게 그리 좋다는데…’하며 쌈짓돈을 풀기 시작한다. 그렇게 시작하여 수십에서 수백만 원대에 이르는 단골로 등록하시게 된다.

전유성 선배가 그러는데 약장수들도 대본 쓰여진대로 연습하는데 내용이 구구절절 절묘하단다.

가슴을 후벼 파는 대사들, ‘자식 낳아 몸 부서지도록 일하고, 애들 도시 보내 공부시켜, 결혼시켜… 그런데 누가 지금 내 곁에 남아 있나? 비 오고 온 삭신 쑤실 때 누가 아픈 몸 알아주기나 하

나?' 신파 중의 신파로 얘기를 쏟아내면 안 넘어올 수가 없단다.

가수에게 열광하는 거나, 그렇고 그런 약장수들 제품 판매의 공통점이 있다면 외로움이다. 내 마음을 알아주니 그쪽으로 기대게 되겠지.

제일 위로받는 분위기는 말 안 해도 알아주는 또래 친구를 마주할 때, 서로 어! 하면 아! 하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벼버려도 퀴즈 하듯이 단어를 알아맞힌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소통이 반갑고 웃음꽃이 만발한다.

며칠 전에는 재동초등학교 동창들과 만나 점심을 먹고, 가까이 사는 친구네로 가서 대봉감 두 개와 요즘 나오는 황금사과 세알을 얻어왔다. 60년 만에 모여서 어린 날 북촌(옛날 가회동)에 얹힌 추억을 나누었다. 정말 그 친구들 어머님의 한복 매무새와 행주치마까지 기억났다. 이젠 자주 보기로 했다. 세월은 60년이나 지났지만 금방 헤어진 것처럼 시간의 흐름도 멈추어서 신기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에 갇혀 있지 말자. 수다를 떨자. 그것도 안 되면 큰소리로 좋아하는 책을 읽고 큰소리로 노래하자. 손으로 종이접기나 뜨개질이라도 하자.



2023년에게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23년아 안녕! 너와 함께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돼 가는구나. 이제 익숙해지고 정들만한데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니 시간 참 빠르다.

너와의 시작이 아직도 생생하다. 너는 검은 토끼의 해라며 계묘년이라고도 불렸지. 늘 그렇듯 처음에만 그런 별칭을 불러주곤 곧 잊히지만 말이야.

솔직히 널 만나고도 한두 달은 작년을 잊지 못해 22년을 썼다가 지우고 널 다시 쓸 정도였어. 하지만 24년을 만난다 해도 당분간 널 잊지 못할 거야.

너와 함께하는 동안 이루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았는데 말이야. 너에게 울끈불끈한 내 몸을 보여주고 싶어서 운동도 시작했지만 한 달도 채 지켜보지 않더라, 너. 유창한 영어 실력도 뽐내려고 준비해 봤지만 넌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 아름다운 곳곳을 다녀보고 싶었는데 넌 벌써 겨울

이더라. 그놈의 야식도 그래. 옆에서 좀 말려주지 그랬어! 책도 많이 읽고 신문도 매일 보고 싶었는데 핑곗거리가 너무 자주 있었네. 아쉽지만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24년하고 함께 이루어 볼 게. 응원해 줘.

물론 너랑 있으면서 좋았던 적도 많아. 아내는 직장에서 부장으로 승진도 하고 두 아들들은 각각 학급에서 회장 부회장도 맡았지. 아빠인 나만 직급이 없어. 하지만 디제이라는 타이틀을 새로 얻었잖아.

그런 의미에서 넌 참 오래 기억될 거야. 나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한 너니까. 충분히 뿌듯해해도 돼.

내가 태어난 79년, 사춘기 93년, 대학 입학 98년, 입대 2000년, 첫 출근 04년, 결혼 08년, 첫째 09년, 둘째 11년, 프리랜서 시작 15년 등등 네 선배들과 내 기억 속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니깐.

이제 정말 작별을 해야겠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어. 때로는 너무 느리게 때로는 순식간에 지나간 너였지만, 힘든 날도 또 한없이 즐거운 날도 품고 있던 너였지만, 심지어 혼자 가지 않고 내 청춘의 일부를 가져갈 너지만! 너로 인해 더 성숙해졌고 또 행복했어.

고마웠어 2023년!



중소기업 직장인의 통장테크

IBK 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

전월 50만 원 이상 금여이체 실적 보유 시, 당월(1~월말)에 우대혜택 제공

금리 우대

연 3.0% (23.6.30 현재 세전)
매월 최종잔액 기준
30만 원 이하

수수료 무제한 면제

당행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타행자동이체수수료
타행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IBK 중기근로자우대적금

계약기간 12개월, 최소 1만 원 이상 월 50만 원 이내 적립

최고 연 5.7% (23.6.30 현재 세전)

고시금리 연 3.5%, 우대금리 최고 연 2.2%p
우대금리 제공기준: 금여이체 실적 보유 시 전 1.0%p,
중소기업 근속기간에 따라 최고 연 2.0%p

* 만기일자금-ミニ(현기 또는 줄도해) 요정 시 이자율 적용

* 충분금리(인상기준) 제2023-3149호(2023.06.20) 유효 기간(2023.12.31) 운행연장한 상인일 및 제2023-00876호 * 월급 및 이자자금제제한: 개정과 일정, 기관별로 금리 설정 등에 따른 경우 월급 및 이자자금 제제한 상기 기준은 우대금리로 지원받는 사항은 기제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IBK 그린캐피탈(150~250만 원)을 통해 적용주시기 바랍니다. ※ IBK 중기근로자금이체통장 및 IBK 중기근로자우대적금은 예금기금운용법에 따른 예금보통점장(기기보통점장) 보호 하도록 한 행정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은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득이 이자율을 합하여 연 15% '최고 5천만원'이며 5년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읽어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 등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IBK 기업은행은 금융·금융·금융을 받지 않습니다. 운리금융·위판·서설이나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02-729-7490, e-mail: ibkethics@ibk.co.kr)

실력 있는

기업들이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ESG, 기업승계, 경영 전반의 맞춤형 컨설팅

IBK 컨설팅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i-ONE JOB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M&A 중개·주선 지원

M&A 생태계 조성

한국은행은 상여금 800-21-8000(2021.08.06) 080-7700-0200(2021.08.07) 금융상품 판매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은행은 금융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은행장은행은 사실상이나 개인적 필요로 정부 고위부처인 02-725-7000 e-mail : ibketh@ibk.co.kr